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9년 9월 22일(주일) 제1262호



하나님께 감사를! 이웃에게 사랑을!

오늘(22일)은 풍성하고 마음 따뜻한 '추수감사주일' 공동체, 다락방, 순, 부서별로 모은 헌물 이웃과 나눔

“감사제물을 바치고 기쁨의 노래로 그분
이 하신 일들을 선포하는 것이 마땅하다”
(시 107:22).

오늘(22일)은 하나님께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깊이 감사하고, 그 은혜와 크
신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는 추수감사주일
이다. 이보다 풍성하고, 뜻 깊고,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절기가 또 없다.

온누리교회는 국내 10개 캠퍼스 공동체,

다락방, 순, 부서별로 쌀과 과일 등의 추수
감사절 헌물을 모았다. 온누리교회 성도들
이 아주 기쁜 마음으로 드린 헌물들은 오늘
예배에서 하나님께 봉헌한 다음, 교회 주변
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할 예정
이다. 추수감사절은 부활절, 성탄절과 함께
기독교에서 중요하게 지키고 있는 절기다.
1621년 신앙박해를 받았던 영국의 청교도
들이 미국으로 이주해서 원주민들의 도움

으로 첫 수확을 하고 3일 동안 열린 축제에
서 기원했다.

우리나라의 추수감사절은 1904년 9월
조선예수교장로회 제4차 공의회(서울 동현
교회)에서 서경조 장로가 한반도에도 복음
이 전파되어 수많은 동포들이 구원받게 된
것을 감사하는 절기를 제정하자는 제의에
서 유래되었다.

온누리교회는 지난해부터 추석 다음 주
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정하고 감사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는 미국과 한국의 절기가
맞지 않는 것을 고려한 결정이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일본어예배 문화전도축제 '키즈페스타'

9월 28일 토요일 오후 1시

일본어예배부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
인들을 위한 맞춤형축제 '키즈페스타'를 개
최한다. 오는 9월 28일(토) 오후 1시 서빙고 온
누리교회 비전홀과 구 골프연습장 부지에서
진행된다. 일본인 부모와 어린이 350명이 참석
할 예정이다.

일본인을 위한 맞춤형축제 키즈페스타의
주제는 '1,2,3 JUMP!'이다. 키즈페스타에 참석
한 일본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기쁨과 영적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바란다는 의미이
다. 일본인을 위한 맞춤형축제 키즈페스타
에서는 패밀리 음악회, 야외 프로그램, 사랑의
이벤트 등의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패밀리 음
악회는 홀라덴스, 서빙고 온누리교회 2부챔버
팀의 연주, 메시지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구
골프연습장 부지에서 열리는 야외 프로그램은
문화축제이다. 게임과 다양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다. 사랑의 이벤트는 2020년 동경올림픽
응원송 '파프리카'를 함께 부르며 일본인과
한국인들이 한데 어울리는 축제이다. **관련기
사 13편**.

한편 일본어예배부에서는 키즈페스타 행사
를 도와줄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다. 봉사시간은
9월 2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일본
어를 못해도 상관없다. 9월 24일(화) 오전 11시
사전 봉사자 모임을 한다. 문의: 02-3215-3702

/ 정현주 기자

순예배 영상콘텐츠 시청안내

시편 121:1~8(9월 26일 본문)

본문 주제: 안전(하나님은 자녀를 지키신다)

영상제목: <진정한 안정감> 침인그림 목사

내용: 우리는 어디로부터 안정을 얻고 있
나요? 우리는 인생에서 실패를 경험
했을 때 힘과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
을 깨닫고 낙담합니다. 하지만 예수
님은 “절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것을 믿으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
복시키고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적용질문: 지금 겪고 있는 문제들 중에 하나
를 골라 말하지 못한 문제는 무엇이며, 마
음속에 있는 가장 큰 불안과 걱정은
무엇인가요?

유튜브 링크: <https://youtube.com/MAOSdLDxY>



CGNTV SOON
유튜브에서 'CGNTV SOON'을 검색하세요

나라와 민족을 위한 특별새벽기도회

9월 30일~10월 5일 새벽 5시 20분, 전 캠퍼스

나라와 민족을 위한 특별새벽기도회가 9월 30
일(월)부터 10월 5일(토)까지 오전 5시 20분 온누
리교회 10개 캠퍼스에서 진행된다. 캠퍼스에는
서빙고 온누리교회 예배실황이 생중계 된다. 이
번 나라와 민족을 위한 특별새벽기도회는 온누

리교회 창립 34주년 기념주일(10월 6일)을 앞두
고 한 주 동안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나라와
민족의 회복을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13절 본
문을 주제로 이재훈 담임목사가 전한다. 이번 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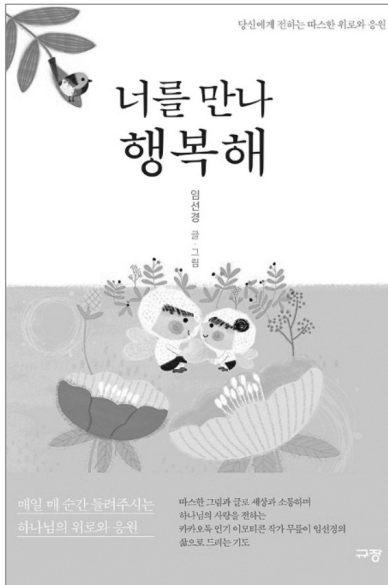
별새벽기도회는 주기도문의 내용으로 나라와 민
족을 위해 중보기도를 한다. 매일 나라와 민족을
위한 자신의 기도문을 작성해 기도할 예정이다.

특순도 풍성하다. 월요일 주찬양찬양사역팀,
화요일 위심콰이어, 수요일 주사랑찬양사역팀,
목요일 주향한찬양사역팀, 금요일 대학청년부,
토요일 차세대가 특순을 한다.



책 읽어주는 목사

더 아름답게, 더 선하게, 더 행복하게



〈너를 만나 행복해〉
임선경 저 | 규장 | 14,000원

행복하다는 말은 언제 할 수 있을까?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낄 때와 자신이 바라던 것이 이루어질 때일 것이다. 그러면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우리는 행복하다고 할 수 있을까?

여기, 행복이라는 단어와 가장 거리가 멀어 보이는 한 그리스도인의 이야기가 있다. 임선경 작가의 〈너를 만나 행복해〉이다. 저자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 생각해 볼 말이 있다.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많이 말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많이 들었던 말이기도 하다. 바로 “열심히 해”, “힘 내”, “잘해 봐”, “잘 될 거야” 등이다.

저자는 어릴 적부터 가정환경이 어려워 성공을 위해 열심히 살았다. 열심히만 하면 다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미래를 준비하던 저자의 성적은 매우 훌륭했고, 안주하지 않고 늘 최선을 다했다. 신앙생활도 성실히 했다. 저자는 과거부터 소망했던 대학에 들어가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될 줄 알았다. 그러나 저자에게 찾아온 소식은 불합격 통지였다. 그 슬픔을 뒤로하고 어렵게 미술의 꿈을 이어갔지만, 성인이 되어 저자에게 찾아온 것은 꿈의 성취와 명성과 찬란한 미래가 아니었다. 남들은 평생 한 번 겪어 보기도 쉽지 않은 삶의 풍파와 수차례에 걸친 암 수술과 합병증으로 인한 고통뿐이었다.

저자는 그때의 상황을 “당시는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에 역경과 시련의 파도 소리만 난무하는 무서운 바다를 홀로 작은 쪽배를 타고 가는 기분이었다”고 표현했다.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생각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던 저자가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했을까?

이에 대해 저자는 아크릴 물감으로 작품을 만들던 과정에서 깨달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아크릴 물감 작업의 특징은 한 번의 붓질로 작품이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러 번의 덧칠과 수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이다. 바로 이 점을 통해 저자는 우리의 인생이 자의든 타의든 잘못된 한 번의 붓질로 인해 망쳐졌다고 쉽게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라고 한다. 원래 우리 모두의 인생은 아크릴 작업처럼 여러 번의 수정과 덧칠이 많이 필요한 작품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붓을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이다. 우리가 바라고 하나님께서 더 바라시던 완전한 작품으로, 하나님께서 덧칠해주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

고 행복하게 완성해주신다는 것이다.

“나의 완벽함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벽하지 않습니다. 나의 완벽함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터치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최고의 화가이신 하나님의 손길이 지나가자 제 상처들과 과거의 실수들이 멋진 작품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제 부족함과 연약함을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름답게 수정하며 완성해 가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 행복합니다.”

우리는 행복하길 원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일을 이루시고 완성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다. 우리가 마주한 상황이나 현실을 통해 행복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만으로 그분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행복하고, 소망을 가지시길 축복한다.



윤준석 전도사
(열린새신자예배)



Q4 그때는 이렇게 대답하세요

“왜 꼭 교회에서 예배드려야 하나요?”

답: “하나님께서서는 우리 개개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동시에 모두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교회는 머리 되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을 뿐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 한 몸을 이루도록 합니다. 성령께서 서로가 서로를 돕고 사랑할 수 있도록 교회를 통해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줄로 묶으신 것입니다. 혼자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들을 교회공동체를 통해서 행하십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배를 왜 꼭 교회에서 드려야 하냐는 질문은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해온 성도에게는 매우 황당한 질문일 수 있다.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질문이다. 하지만 이 질문은 Z세대라 불리는 현재의 청소년을 포함한 젊은층 성도들이 품고 있는 질문이다.

Z세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키워드가 세 가지 있다. ‘개인주의’, ‘효율성’ 그리고 ‘영상매체’이다. 공동체의 안녕과 유익보다 개인의 행복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시대다. 신앙도 마찬가지다. 개인의 신앙이 강조되고 있

다. 특히 젊은이들에게 있어 효율성은 성공의 지표 중 하나이다. 홍수처럼 넘쳐나는 ‘자기개발서’는 하나 같이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외친다. 또한 Z세대는 문자보다 영상에 익숙하고 이를 선호한다. 이 같은 Z세대의 세 가지 특성을 이해한다면 ‘꼭 교회에서 예배드려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들은 교회에 가기 위해 시간을 들이는 것보다 주일 아침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만으로도 개인의 신앙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주장을 지지하는 듯한 성경구절도 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예배는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한다는 개념을 깨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여인아, 나를 믿어라. 이제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올 것이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다면 어디에서 그리고 어떤 형식으로 예배드리는 것은 그리 중요해 보이지 않는다. 실제로 이와 같은 이유로 교회를 떠나는 ‘가나안’ 성도들이 늘고 있다. 우리는 이런 성도들에게 추구해야 할 목표를 분명하게 제시해줄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추

구해야 할 목표는 교회의 모델이 되는 초대교회로부터 얻을 수 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기술하고 있다. 그 말씀 중에서 이들이 ‘모였다’는 말이 두 번 나온다.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 물건을 함께 사용했고, 날마다 성전에서 ‘한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썼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빵을 떼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 모였다. 당시에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모이기 위해서 힘을 써야 했다. 어쩌면 지금보다 많은 힘이 필요했을 것이다. 당시 핍박의 대상이었던 교회에 나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의지와 용기가 요구됐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모인 이유가 무엇일까? 다양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몇 가지를 유추해보면 그들에게 선물로 주어진 복음을 지키기 위해 모였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하기 위해 모였을 것이다. 물건을 통용하되 물질만 제 공하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인 지원을 주고받기 위해 모였을 것이다.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이는 것에 가치를 둔 이유는 다양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 개개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우리 모두를 교회로 부르셨다.

교회는 머리 되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을 뿐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 한 몸을 이루도록 한다. 성령께서 서로가 서로를 돕고 사랑할 수 있도록 교회를 통해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줄로 묶으신 것이다. 혼자서는 결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교회공동체를 통해서 행하신다.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무한 이기주의의 영향 속에 살고 있는 젊은 이들이 ‘꼭 교회에서 예배드려야 하나요?’라고 질문한다는 것이 어쩌면 교회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다고 하실만한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은 아닐까 반문해본다. 우리 모두는 시대와 세대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우리 공동체 안에서 보여줌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임경현 목사
(양재 파워웨이트)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참된 회개(4) 마음을 씻고 하나님께로

요엘 2:12~18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강박한 마음이 찢어지고,
참된 회개의 슬픔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회개는 “돌이키고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이키라 명하지 않으시고, 또 돌이킬 수 있는 길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돌아갈 수 있는 길,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허락하셨다 할지라도 인간은 자유의지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타락한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인간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마음껏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다 할지라도 자신의 의지로 끝까지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명하시니 저에게 회개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참된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어서 자신의 자유의지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믿지 않습니다”라는 것은 거짓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무것도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믿는 것입니다. 무신론은 강력한 믿음입니다. 헛된 우상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을 돌이켜서 살아계시며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내가 믿는 대상이 어떤 존재인지, 참되신 하나님인지 아니면 헛된 우상인지를 분별하는 지성적인 돌이킴을 포함합니다. 또한 참된 회개는 마음을 찢는 회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을 찢는 것으로 회개를 표시했습니다. 옷이란 연합함을 덮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정체를 속이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옷을 찢음으로 진실을 표시하고, 회개를 표시했던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옷을 찢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다. 그것이 참된 회개의 징표가 될 수는 없다. 옷을 찢었다고 해서 참된 회개의 징표가 될 수는 없다”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마음을 속이고 숨기는 기술이 있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외적인 형식이나 표현으로 자신의 진실된 마음을 감추는 교묘한 죄악의 기술이 능숙하기 때문입니다. 참된 회개로 나가가기보다는 우리의 계획, 결심, 외적인 형식, 의식적인 표현으로 참된 회개의 마음을 감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통회하는 마음 대신 다른 어떤 것들로 포장하는 기술이 인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참된 회개는 마음을 찢는 것

참된 회개는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마음을 찢는다’는 것은 감정적인 돌이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위선자들의 슬픔은 언제나 얼굴에만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얼굴만 흉하게 합니다. 마음의 슬픔이 아니라 겉모양의 슬픔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많은 위선자들의 슬픔을 보십시오. 바로에게도 슬픔이 있었습니다. 사울에게도 슬픔이 있었습니다. 아합 왕에게도 슬픔이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도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슬픔은 모두 겉모양의 슬픔이었을 뿐입니다. 진정 마음을 찢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왜 마음을 찢어야 합니까? 위선을 내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겉모양으로 만족하기를 원하고, 진정 자신의 속마음을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것을 거부하는 마음이 찢어져야 위선을 내쫓을 수 있습니다. 참된 회개는 찢어진 마음 사이로 깊은 슬픔의 눈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임재로 강박한 마음과 단단한 마음이 깨어지면 그 속에서 눈물의 강수가 솟구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와 말씀이다. ‘이제라도 너희가 금식하고 슬퍼하며 통곡하면서 너희의 온 마음을 다해 내게 돌아오라.’ 너희의 옷이 아닌 너희의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분은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며 화를 내는 데는 더디시고 사랑이 풍부하시며 마음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기도 하시는 분이시다”(12~13절).

참된 회개의 슬픔

사람이 흘리는 눈물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원치 않는 실패로 인한 절망으로 흘리는 눈물입니다. 둘째, 받아들이기 힘든 고난으로 고통스러워 흘리는 눈물입니다. 셋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애통해하며 흘리는 회개의 눈물입니다. 참된 회개의 슬픔은 내가 받을 형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슬픔이 아닙니다. 자신의 죄 그 자체에 대한 슬픔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선하심과 풍성한 인자하심 앞에서 자신의 죄를 슬퍼하는 것이 참된 회개의 슬픔입니다. 이 슬픔만이 죄를

사랑하던 우리의 감정을 내뱉습니다. 우리 마음에 숨어 있는 죄가 씻겨지는 것입니다. 목사이자 시인인 임병곤이라는 분이 쓴 ‘눈물 예찬’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눈물은 보약입니다.

눈물은 그냥 물이지만 흘리고 나면
몸에 면역력이 생기는 종합비타민입니다.

눈물은 해독제입니다.

해일처럼 밀려와 깊은 마음속을 뒤집고
우울과 절망을 밀어내는 살균수입니다.

눈물은 신비한 액체입니다.

첫물도 못 녹이는 꿈꿨던 얼어붙은
원수의 마음도 봄 눈 녹듯이 녹입니다.

눈물은 하늘 씨앗입니다.

마음껏 울고 나면 웃음꽃이 피어나고
눈물을 뿌리면 기쁨을 추수합니다.

눈물은 약속입니다.

비 갠 후 희망의 무지개가 피어나듯
눈물 후 언약의 무지개가 떠오릅니다.

눈물은 은혜입니다.

눈물의 기도가 수증기 되어 올라가면
은혜의 단비가 되어 축축이 내립니다.
아! 눈물 흘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참된 회개의 눈물은 거꾸로 흐릅니다. 땅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 은혜의 단비가 되어 내려옵니다. 다윗이 회개 가운데 많은 눈물을 흘렸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시 56:8).

죄를 슬퍼하며 흘리는 회개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병에 담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로 내려주십니다. 이 눈물은 억지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결심으로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눈물이 솟구쳐 오를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어떤 마음으로 인하여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유일한 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내가 다윗의 백성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

들 위에 은혜와 용서를 구하는 마음을 부어 줄 것이다. 그들은 그들이 찢려서 상처를 입은 나를 보고 슬피 울 것이다. 마치 외아들을 마음에 두고 슬피 울 듯이 슬피 울 것이며 만아들을 마음에 두고 슬피 울 듯이 슬피 울 것이다”(슥 12:10).

마음이 찢어지는 통회의 눈물이 솟구쳐 오르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허리에 창을 찔리고, 온 몸에 채찍질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구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부어질 때 슬피 울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 긍휼하심이 얼마나 크신지 알게 되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앞에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고 무섭고 무겁고 끔찍한 죄인지를 깨달을 때 내 죄로 인하여 슬퍼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슬프게 했는지를 깨닫게 되면서 우리 마음속에 큰 슬픔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마음은 은혜와 용서를 구하는 마음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구하는 마음이 임할 때 우리의 단단해진 마음을 깨뜨립니다. 강박한 마음을 찢게 합니다. 그 찢어진 마음에서 슬픔의 눈물이 흘러나옵니다.

우리를 슬프게 하는 많은 고통이 있지만 가장 큰 고통은 외아들을 먼저 떠나보냈을 때의 슬픔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슬픔이기 때문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깨달은 우리 모두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결정, 주권, 사랑의 능력이었기에 그 슬픔을 품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놀랍게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든 이들은 아버지의 슬픔을 느끼게 됩니다. 그 사랑을 느낄 때 우리는 슬픔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느낄 때 우리는 그 통곡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누릴 때 나에게 조금도 감정적인 슬픔, 통회, 마음을 찢는 느낌이 없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지 못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을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슬픔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3편에 계속〉

기획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크리스천들이 실천할 수 있는 환경운동

대중교통, 텀블러, 장바구니 이용, 친환경 수련회 등 교회 담장 넘어 가정과 지역사회로까지 뻗어나가야

환경오염으로 인해 조기사망한 사람이 900만 명이나 된다. 전 세계 사망자 6명 중 1명이 환경오염 때문에 조기사망하는 셈이다(2015년 국제의 학학술지 '랜셋'). 900만 명 중 650만 명이 미세먼지, 180만 명이 수질오염, 80만 명이 공장 등 근무환경에서 나오는 오염원이 원인이 되어 사 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에이즈와 말라리아, 결핵으로 죽은 사람들을 모두 합한 것보다 3배 이상 많은 수치이다. 전 세계 모든 전쟁이나 폭 력으로 희생되는 사람보다 15배 이상 많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한 연구원은 "환경오염이 생명권, 건강, 안전한 근무환경, 아동과 취약계층 보호 등 인간의 기본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지구가 환경오염 때문에 신음하고 있다. 청지기 사명을 가진 교회와 크리스천의 책임이 막중한 이유가 바로 여 기에 있다. 왜냐하면 교회와 크리스천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를 잘 지키고 보전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환경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 님의 뜻이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김민음(가명) 성도는 이번 추석 연휴에 충격 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아파트 쓰레기장으로 어떤 아저씨가 커다 란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들고 기다리고요. 추 석 연휴 동안 집에서 나온 음식물쓰레기 같은 데, 무려 20kg이 넘더라고요. 사흘 정도 되는 짧은 기간에 가정집에서 음식물쓰레기가 20k g나 나오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만큼 낭비가 심하다는 거잖아요.”

이 아파트만의 문제가 아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환경미화원들이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명절 직후 평소보다 훨씬 많은 쓰레기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명절 이후 배출되는 음식 물쓰레기가 평소보다 2배가량 많다. 이를 수 거하는 환경미화원들이 그만큼 더 수고를 해 야 한다. 비단 음식물쓰레기만의 문제가 아니 다. 장 볼 때 받은 1회용 비닐, 카페에서 편하 게 이용하고 있는 일회용컵, 생수 페트병, 플 라스틱 빨대 등 줄일 수 있는데 무심코 버려지 는 쓰레기가 너무 많다. 이렇게 무심코 버리는 쓰레기 하나하나가 모여 지구를 오염시킨다. 사람들이 무심코 버린 쓰레기들이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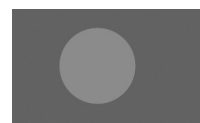
환경오염, 다음 세대의 건강과 안전 위협

‘GPGP’(Great Pacific Garbage Patch)’는 ‘ 거대한 태평양 쓰레기 더미’라는 뜻이다. 태 평양 쓰레기 섬을 지칭한다. 1997년 찰스 무어 라는 요트 선수가 LA에서 하와이까지 요트로 태평양을 횡단하다가 발견했다. 발견 당시 태 평양 쓰레기 섬 크기가 한반도의 7배 정도였 는데, 해마다 그 면적이 증가해서 2018년에는 한반도 크기의 무려 15배로 커졌다. 쓰레기 무 게만 8만 톤에 이른다. 이 쓰레기 섬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비닐과 플라스틱이다. 이 같은 쓰레기 섬이 태평양뿐만 아니라 북대서 양에서도 발견됐다. 그 크기 또한 한반도 면적 의 5배에 달한다.

이 거대한 플라스틱 쓰레기 섬이 파도에 치 이면서 더 작은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하고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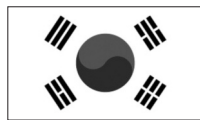
2018 세계 대기질 보고서

(PM2.5 노출 추정치)



세계 1위
방글라데시아 97.1 $\mu\text{g}/\text{m}^3$

:



세계 27위
대한민국 24 $\mu\text{g}/\text{m}^3$

다. 이 미세플라스틱을 해양 동물이 먹고, 먹 이사슬을 거쳐 다시 우리 식탁으로 올라오고 있다.

서울의 대표적 명소인 남산서울타워를 밤에 유심히 보면 색깔이 변한다. 남산서울타워의 조명이 빨간색이었다가, 파란색도 되었다가, 초록색이 되기도 한다.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위해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 다.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조명색이 달라지는 것이다. 빨간색이면 매우 나쁨, 주황색이면 나쁨, 초록색이면 보통, 파란색이면 좋음을 나타 낸다.

미세먼지 문제도 심각하다. <2018 세계 대기 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초미세 먼지(PM2.5) 농도가 세계 27위로 경제협력개 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에서는 칠레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원인은 대기정체 등 기 후변화의 영향이 가장 큰데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질 정도의 고농도 미세 먼지 일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미세먼지는 어른보다 어린이들의 건강에 더 치명적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2017년 3월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한국의 어린이가 처한 환경 실태가 하위권이 다. 국내 환경오염 탓에 사망하는 5세 이하 어 린이가 인구 10만 명 당 13.1명(세계 31위)으 로, 1위 아이슬란드(27.1명), 노르웨이(5.12명),

스웨덴(5.93명)보다 훨씬 많다. 국내 어린이 인 구(생후 59개월 이하) 223만여 명 중에서 연간 290여 명이 대기오염으로 인해 사망하고 있는 셈이다. 또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5세 이하 어린이 중에서 매년 590만 명이 사 망하고 있는데, 29%에 해당하는 170만 명이 환경오염(대기오염, 수질오염, 화학물질 노출 등) 탓으로 사망한다.

환경오염은 선천성 장애인 증가로도 이어지 고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국 내에서 태어난 선천성 장애인은 모두 4만 4896명으로 전체 신생아의 10.3%를 차지했다. 2009년 5.1%에 비해 5년 사이 선천성 장애인 발생률이 두 배 늘었다. 전문가들은 산모의 고 령화와 함께 환경오염을 그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았다. 환경오염이 자라나는 다음 세대의 건강과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매우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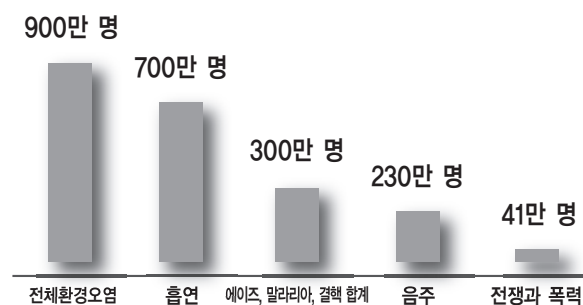
지금 바로 ‘행복한 불편함’ 캠페인 실천해야

지금 바로 친환경적 삶을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교회와 크리스천이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환경운동이 있다. 거창하고 어려운 일 이 아니라 아주 조금만 불편을 감수하면 된다. 온누리교회가 시행하고 있는 ‘행복한 불편함 ’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는 것만으로도 꽤 큰

세계질병부담연구(GBD)

전세계 사망원인별 사망자 수

(단위 100만명 당, 2015년 랜셋 보고)



효과가 있다. 오는 10월 6일은 ‘대중교통 이용 하는 주일’이다. 자가용 대신 지하철, 버스, 택 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교회에 오면 된다. 환경도 생각하고, 지역주민을 배려하고, 지역 경제에도 보탬이 되는 일석삼조의 기회이다.

환경을 생각하는 자연친화적 수련회도 좋은 아이디어다. 지난 8월, 사회선교본부 생명과 환경팀이 ‘Green MT’를 주제로 이색수련회 를 다녀왔다. 모든 과정을 친환경적으로 준비 하고 진행했다. 마트에서 장 볼 때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를 이용했고, 플라스틱 빨대 대 신 종이 빨대를 사용했다. 수련회에서 마실 물 은 일회용 페트병 생수가 아니라 자연여과 방 식으로 정수되는 셀프케어 정수기를 사용했 다. 잔반을 남기지 않도록 적절한 양의 음식을 준비했고, 일회용 종이컵대신 개인 텀블러를 이용했다.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계면활성제 가 들어간 화학세제 대신 EM(유용 미생물) 원액으로 설거지를 했다. 세안할 때는 비누대 신 싼뜨물을 썼다. 그 효과는 실로 대단했다. 생명과환경팀 1박2일 수련회 기간 동안 쓰레 기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발생한 쓰레기 대 부분은 재활용이 가능했다.

환경을 살리려는 노력 그 자체가 선교가 되 기도 한다. 지난 2007년 12월, 태안 앞바다에 서 유조선 ‘해베이 스피릿호’가 해상 크레인 과 충돌해서 원유 12,547t이 유출되는 해양

오염 사고가 발생했다. 국가적인 대형 해양오염 사고에 전 국민이 태안 앞바다로 달려가 ‘태안 살리기 운동’에 참가했다. 그 덕분에 태안 앞바다는 세계적으로도 유례 없을 정도로 빠르게 회복했다. 그 당시 자원봉사의 80%가량이 크리스천이었다. 이는 가톨릭의 8배, 불교의 9배에 달했다. 온누리교회도 두 팔 걷어부치고 태안으로 달려갔다. 일일 평균 150명

총 4,500여 명이 봉사활동에 참가했다. 우의, 고무장갑, 방한모자, 마스크 등 복구 장비에만 투입된 금액이 1억5천만 원에 달했다. 그 일을 계기로 태안 온누리교회(기도처)가 태동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창 1:31).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매우 만족해하셨다. 그런데 청지기인 우

리가 창조세계를 오염시킨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피조세계를 잘 다스리고 지켜야 할 의무가 교회와 크리스천들에게 있기 때문이다. 지금 바로 행복한 불편함 캠페인을 실천해야 한다. 교회 담장을 뛰어 넘어 가정, 지역사회로까지 뻗어나가 지구를 살리는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

환경을 살리는 사소한 실천 Tip!

- 대기오염 대부분은 자동차 배기가스가 원인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자.
- 일회용품 대신 개인컵이나 텀블러 사용하자.
- 세탁소에서 1회용 비닐커버를 받지 말자.
- 장 볼 땐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를 사용하자.
- 배달음식 시킬 때 일회용품을 받지 말자.
- 선물할 때 마음은 최대한, 포장지는 최소한

기고

편리함과 평안함은 다르다!

우리가 꼭 해야 할 생명과 환경 위한 작은 실천



신동식 목사
(성북공동체, 사회선교부 생명과환경팀 담당)

우리 교회에서는 매주 27톤 분량의 쓰레기가 나오고, 7,000개의 일회용품이 매주 소비되고 있다.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만 발생하는 일반폐기물이 연간 145톤이며, 교회 카페에서

소비하는 일회용품이 364,000개에 달한다.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창 1:22)해야 할 물고기와 새들이 받을 복을 빼앗았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아름답다. 생명력이 있고 사람에게서 힘과 회복을 준다. 하지만 세상은 균형을 잃어가고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스리라”는 명령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으며, 성경대로 살지 못하고 있음이 세상에 나타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생산된 플라스틱 83억 톤 가운데 63억 톤이 쓰레기로 버려졌다. 버려진 것 가운데 재활용된 것은 단 9%. 매립되거나 소각된 것까지 합쳐도 20%를 넘지 않는다. 모두 산이나 바다나 강에 뿌려졌다. 2050년이면 바다에 물고기보다 플라스틱이 많아질 것이라 예측이 억측은 아닐 것이다.

생명과 환경을 위한 기도

우리는 플라스틱이 이 세상에 만들어진 이래로 분해된 것을 본 적이 없다. 플라스틱은 1900년대 초에 만들어졌는데, 플라스틱이 분해되는데 필요한 시간은 최소 500년이기 때문이다. 작아진 플라스틱은 ‘마이크로 플라스틱’이라고 한다. 우리가 신뢰하고 마시고 있는 세계적인 모 생수(페트병) 안에 1리터당 적혈구 크기 104개의 플라스틱 입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플라스틱은 우리가 마시는 물과 먹거리를



오염시켰다. 플라스틱이 분해될 때 나오는 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해서 나노미터 단위의 플라스틱이 사람의 세포막까지 침투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밝혀진 사실이다. 우리는 매일 플라스틱을 축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앞으로 우리 몸에 어떤 치명적인 피해를 가져올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도 플라스틱을 연간 1인당 132.7kg씩이나 버리고 있다. 지금 당장 사용을 중지한다고 해도 앞으로 500년~1000년 이상은 우리 바로 곁에서 환경을 어렵게 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 많은 풍요와 편리함을 쫓았다. 하나님께 받은 생명의 감수성을 잃어버린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인식의 변화다. 우리의 기도제목 중에 나라와 민족, 교회와 성도를 위한 기도와 더불어 ‘생명과 환경을 위한 기도’를 추가해야 한다. 자연은 신음하고 있고, 플라스틱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매일 환경을 위해 기도하다보면 우리의 행동이 자연스럽게 바뀔 것이다. 환경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하지만 실천은 다른 사람의 몫이라고 느끼고 있다. 바

로 이것이 문제이다.

필요와 욕망 사이

생명을 위해 교회가 먼저 앞장서야 한다. 그리스도인이 기도하고 실천하면 변화가 시작된다.

우리는 지금 버리는 것이 너무 많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종이컵 재활용률은 1년 사용량 230억 개(플라스틱 컵 17억 개)중에서 단 1% 뿐이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일회용컵을 사용한다. 일회용품 사용을 막을 수는 없지만 줄일 수는 있다. 필요를 넘는 것이나 과다하다고 여겨지는 것부터 줄여야 한다.

만약 집에서 물을 마실 때 일회용컵을 계속 사용한다고 하면 분명 불편한 느낌이 들 것이다. 이러한 마음을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온누리교회는 이미 텀블러 사용하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텀블러를 가지고 각종 예배와 스쿨에 참여하고 있다. 어떤 스쿨은 간식데이에서 종이컵을 사용할 때 환경부담금 500원씩을 저금하게 한다. 자연스럽게 텀블러 사용을 실천하고 있는 것

이다. 텀블러는 개인물컵이지만 매우 참여적인 환경운동이자 선교활동이다. 교회 카페에서 텀블러를 가지고 음료를 주문하면 50원씩 할인해준다. 할인된 금액 50원은 선교비로 사용되도록 포스기기(점포 판매 시스템) 시스템을 바꾸었다. 교회 카페에서 텀블러를 휴대하고 음료를 주문하는 사람이 10명이라면 500원이 선교비로 지원되는 것이다.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은 텀블러가 환경을 지키는 일과 복음전파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도구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점점 더 많은 공동체와 스쿨이 참여하고 있다.

온누리교회 모든 정수기 위에는 특별한 그림이 붙어 있다. 차세대 어린이들이 환경에 대한 생각을 그림으로 그려 붙여 놓았다. 그 그림을 볼 때마다 대화용컵을 사용하겠다고 다짐해야 한다.

미국의 기상학자 로렌츠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상변화를 예측하는 과정에서 소수점 이하의 아주 근소한 입력 값의 차이가 완전히 다른 기후패턴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일명 ‘나비효과(butterfly effect)’이다.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날씨에 변화를 줄 수 있듯이 미세한 변화가 앞으로 예상하지 못하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플라스틱 제품 사용과 관련해서 나의 ‘필요’와 ‘욕망’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작은 컵이나 빨대 하나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 작은 날갯짓이 환경을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고 실천에 옮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다.

스스로에게 질문해보기를 바란다. 음료수는 꼭 빨대로 마셔야 할까? 컵홀더는 반드시 필요할까? 가능하다면 줄여보는 도전이 필요하다. 편리함과 평안함은 다르다. 그리스도인은 평안함을 추구해야 한다. 평안함은 불편함 속에서도 얻을 수 있다.

‘샬롬 이스라엘’ 창립예배 앞두고 / 류모세 목사와 함께

“이스라엘 선교, 새롭게 시작합니다!”

샬롬 이스라엘 창립예배 9월 28일 오전 10시

온누리교회가 ‘샬롬 이스라엘’을 창립해서 이스라엘 선교를 새롭게 시작한다. 오는 9월 28일(토) 오전 10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시온홀에서 샬롬 이스라엘 창립예배를 드린다. 샬롬 이스라엘은 매주 토요일 오전 8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시온홀에서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모임을 열고 있다. 앞으로 다양한 사역을 펼쳐갈 예정이다. 샬롬 이스라엘을 담당하고 있는 류모세 목사를 만나서 이스라엘 선교가 왜 중요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샬롬 이스라엘의 선교 방향이 무엇인지 들어봤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류모세 목사는 “이스라엘 선교를 위해 함께 기도하자”고 권면했다.

온누리교회 이스라엘 선교 역사가 궁금합니다.

“온누리교회 이스라엘 선교 역사는 교회 창립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온누리교회를 시작할 때 하용조 목사님께서서는 평신도들에게 성경공부를 많이 맡기셨습니다. 그 평신도 중에서 김종배 장로님이 로마서 성경공부반을 인도하셨습니다.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백성이었지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로마군에 넘겼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구원계획이 실패한 것일까요? 이런 의문을 가지고 성경과 이스라엘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중보기도 모임이 생겨났습니다. 나중에는 하용조 목사님께서 이스라엘 사역을 전문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하셔서 이스라엘 중보기도모임이 키비(Korea Israel Bible Study)로 발전했습니다. 키비는 내부에서 발생한 문제로 인해 지난 5월부터 교회에서 사역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온누리교회 이스라엘 선교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지난 6월 8일부터 창립을 준비하면서 중보기도모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선교가 왜 중요하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구속을 완성하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앞으로 이뤄야 할 역사는 재림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

면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지상명령입니다. 또 다른 미션은 마태복음 23장 39절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복되시다!’ 하고 말할 때까지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지만 복음이 시작된 이스라엘도 회복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선교는 예수님의 재림을 위한 조건 중 하나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그림은 요셉과 같다고 합니다. 신학자들은 요셉이야기를 마지막 때에 유대인들이 예수께 돌아오는 모형으로 봅니다. 요셉이 다시 돌아왔을 때 형제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듯이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형제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애굽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이 보기에 기독교는 완전히 이방의 종교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요셉이 스스로 자기를 나타냈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들에게 스스로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 예언이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나옵니다.

“내가 다윗의 백성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위에 은혜와 용서를 구하는 마음을 부어줄 것이다. 그들은 그들이 찢어서 상처 입은 나를 보고 슬피 울 것이다.”

예수님이 스스로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

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선교학자들은 이스라엘 선교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것이 절반만 맞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이 형제들과 상봉하기까지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의 적극적인 중재가 있었습니다. 함께 마음 아파했습니다. 요셉에게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애굽 사람들처럼 유대인들을 생각하며 아파하고 중보기도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선교는 기도가 99%를 차지합니다. 기도를 쌓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어색해 합니다. 샬롬 이스라엘은 기도 중심의 모임입니다. 매주 토요일 8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시온홀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똑같은 기도문으로 전 세계 많은 이스라엘 중보자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문에는 이스라엘 소식, 사역자, 메시아니 교회 기도제목, 소식 등이 담겨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기독교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은 기독교에 대해 안 좋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고 흩어졌을 때 이슬람 국가에서는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국가에서는 강제 개종을 당하거나 추방이나 멸절을 당했습니다. 홀로코스트가 20세기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거의 매 세기마다 홀로코스트가 있었습니다. 그 사이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에 아픔이 쌓였습니다. 랍비들이 예수에 대해 가르치면서 로마 군병과 마리아 사이에 태어난 사생아라고 하기도 합니다. 편견 없이 읽기만 해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이사야서 53장은 회당에서 읽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나라는 36년 일제강점기의 아픔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2천 년의 아픔이 쌓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강조하는 기독교가 유독 유대인들에게 칼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거사를 알고 중동의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샬롬 이스라엘에서는 이와 같은 역사를 알려주는 스쿨을 오픈할 예정입니다.”

이스라엘 사역을 하면서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며 교단이 만들어지고, 대외적인 단체와 신학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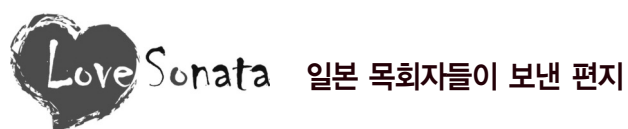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일종의 사이비 같은 단체도 여럿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이스라엘 사역을 반기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해 눈뜬 일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알아야만 성경이 보인다”는 분위기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보통의 성도님들이 이 같은 주장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선교에서 주의할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주의입니다. 할례를 받고, 레위기 음식을 유대인처럼 지켜야 한다, 심지어는 주일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유대교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주의했던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율법주의를 조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정치적인 시오니즘입니다.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들의 갈등이 심한데 무조건적으로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정착촌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지역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땅을 모두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하는 랍비들이 이스라엘에서 팔레스타인을 몰아내려고 합니다. 그런 랍비들이 팔레스타인 거주 지역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데 그곳을 정착촌이라고 합니다. 정치적인 시오니즘에 빠진 크리스천들은 정착촌 확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기도 합니다.

크리스천들은 갈등이 발생했을 때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하는데 한 쪽으로 치우쳐서 한 쪽만 지지하면 또 다른 갈등을 낳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보자들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막힌 담이 십자가로 허물어지고 ‘한 새 사람’(엡 2:14)으로 회복되도록 화해자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영적인 사대주의도 주의해야 합니다. 랍비, 유대인이라고 하면 우리러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유대인이고, 이스라엘에 산다고 구원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점에서 샬롬 이스라엘은 비전의 말씀으로 예레미야 31장 7절,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씀을 붙잡고 새로운 이스라엘 선교 사역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류모세 목사는 온누리교회 협동 목사다. 이스라엘 선교 전문가이다. 온누리교회 파송 선교사로 이스라엘에서 10년 동안 의료선교, 유대인 교회 개척 등의 사역을 했다. 저서로는 <열린다 성경>, <열린다 비유>, <유대인 바로보기> 등이 있다.



“지금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포할 때”

정치·경제·역사 문제 등으로 한일관계가 날로 악화되고 있지만, 우리는 영혼구원의 사명을 결코 멈출 수 없다. 이 세상에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보다 귀한 일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본 목회자들과 교계도 우리와 같은 마음이다. 러브소나타 구마모토 실행위원들과 역대 러브소나타에 참석했던 일본 목회자들이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기도와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는 두 번째 편지를 보내왔다. / 편집자 주

두터운 영적 장벽을 깨부수고, 이제껏 없었던 영적 일치를!



이토 요시코 목사
(러브소나타 오키나와 사무국장)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모두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소서”(요 17:21).

2007년 첫 번째 러브소나타 오키나와를 시작으로 일본 전국에서 펼쳐진 사랑과 선교의 사역 러브소나타가 30번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일본을 향한 온누리교회와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와 감동이 있습니다. 러브소나타는 전 국민의 1%인 일본 크리스천이 뛰어넘지 못했던 두터운 영

적 장벽을 깨부수고, 이제껏 없었던 영적 일치를 가져왔습니다.

고 하용조 목사님의 성숙한 신앙과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 “나는 일본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들의 영혼에 깊이 새겨져 앞으로 결코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인들에게 결코 치유될 수 없는 아픔을 준 일본을 사랑으로 품고 용서하는 모습은 마치 스스로 자신을 버리고, 사랑과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시대의 강한 성령의 역사하심이며 주의 나라를 알리는 사역임을 확신합니다.

근래 눈에 비치는 정치 상황을 보면 한국과 일본이 서로 미워하게 하고, 정죄하고 분열시키는 사단의 역사를 뚜렷하게 살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협력하여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11월 구마모토에서 열리는 러브소나타에서는 2016년 구마모토 지진의 아픔으로부터 치유와 회복, 복구와 부흥으로 이어지는 주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일본의 영적 세계를 엿매고 있는 사단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계기가 될 것을 확신하며 오키나와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꽃대를 향하여 달려가기를”



사미 다케시 목사
(러브소나타 후쿠오카 실행위원장)

일본 후쿠오카에서 인사드립니다. 지난 28번째 러브소나타 후쿠오카에서도 각별한 기도와 봉사 그리고 헌금까지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러브소나타 후쿠오카를 통해서 후쿠오카에 뿌려진 선교의 씨앗이 싹을 틔우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가을 후쿠오카에서 그리 멀지 않은 구마모토에서 30번째 러브소나타가 개최됨을 너무나도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마모토는 2016년 4월 두 번에 걸쳐 대지진이 일어난 지역이기도 합니다. 당시 온누리교회는 신속하게 지원팀과 함께 CGNTV를 보내주시는 등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지속적인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지진으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 섬겨 주셨던 사랑의 손길이 선교의 열매가 되어 풍성한 결실의 날을 맞이할 그날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과 일본은 많은 갈등을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위기일수록 자신을 성찰하며, 참된 회개를 하고, 성숙한 사랑을 성장시켜야 합니다. 러브소나타 구마모토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형태로 나아가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한국의 상황을 고려해볼 때 러브소나타는 결코 쉽지 않은 결단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의 십자가의 구원이 그곳에 있는 한, 함께 꽃대를 향하여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한국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헤아릴 수 없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켄트 에디호스 목사
(러브소나타 시즈오카 가스펠나이트담당)

샬롬!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재훈 목사님을 비롯해서 온누리교회 스태프와 모든 성도님들께 세계선교 및 일본선교에 힘써주시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온누리교회는 2007년부터 일본 각지에서 러브소나타를 개최하며 수많은 일본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러브소나타를 통해 일본인들이 십자가의 구원을 체험하는 기적은 정말 멋진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올 가을 30번째 러브소나타 구마모토가 개최됩니다. 구마모토에 헤아릴 수 없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저는 지난 5월 개최된 러브소나타 시즈오카에서 넘치는 은혜와 감동을 경험하였습니다. 특히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의 봉사하는 모습

이 저에게 큰 도전을 주었습니다. 시즈오카를 관광 목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 들일 수 있도록 일본까지 오셔서 섬기시는 모습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져다 준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크리스천으로서 살아온 오랜 시간 하나님의 나라에는 국경과 언어가 필요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또한 그 사랑이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임하는 역사를 체험해왔습니다. 그곳에는 분열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러브소나타는 하나님의 나라와 십자가의 사랑의 기적임을 진심으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세로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일본인을 예수님에게로 연결하는 역할이 러브소

나타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5월 러브소나타 시즈오카에서도 그 기적을 보았습니다. 십자가의 가로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한국인과 일본인이 손을 잡고 십자가로 하나 되는 기적이야말로 러브소나타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두 가지 기적을 기대하며 개최되는 30번째 러브소나타야말로 ‘어메이징 그레이스(Amazing Grace)’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정치적 문제로 악화된 한일 관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포할 때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한일관계의 악화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한일관계의 완화를 이루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입니다. 11월 6~7일 열리는 러브소나타 구마모토에서 한국과 일본의 크리스천이 하나 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하고,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기적이 임할 것을 기대합니다. God bless you!

세상을 바꾸는 크리스천 문화 2. 학교생활

그 이름은 ‘스쿨체인저스!’

학교를 변화시키는 크리스천 청소년들의 기도모임

어느 순간부터 학교는 행복한 곳이 아니다. 분명 아니다. ‘등교거부증’이나 ‘학교공포증’이라는 단어가 끊임없이 회자되는 이유도 그 때문일 것이다. 등교거부증과 학교공포증은 말 그대로 학생들이 특정한 이유 없이 학교 가기를 대단히 두려워하거나 학교에 가지 않으려는 행동 및 증상을 말한다. 치열한 입시전쟁, 학업에 대한 중압감,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학교폭력이라는 그림자가 학교를 지옥으로 만들어버렸다.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천국 같은 학교를 되돌려 줄 수 있을까? 서로 사랑하고, 돕고, 나누는 교회문화를 학교에 정착시켜보는 것은 어떨까? 그 구체적인 방법 몇 가지를 소개한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진짜 도망치고 싶어요.”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는 소망이(16세)는 학교가 너무 싫고 무섭다. 그래서 진심으로 도망치고 싶다. 원하는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내신 성적(학업성취, 생활태도, 출결 상황 등을 종합한 성적)을 관리해야 하는데 그 스트레스가 정말 크기 때문이다. 부모님의 높은 기대, 선생님들의 압박, 친구들과의 무한 경쟁 그 어느 것 하나도 소망이를 괴롭히지 않는 것이 없다.

사랑이(18세)는 고등학교를 자퇴했다. 정말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에게 집단따돌림을 당했는데 그 고통을 도저히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다. 자신을 지독하게 괴롭히는 친구들이 있는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은 정말 끔찍했다. 지금도 사랑이는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회상할 때마다 “빨리 도망치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다”면서 격한 감정을 토해낸다. 사랑이는 고등학교 졸업장을 따기 위해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다. 검정고시를 준비하면서 만난 선생님의 전도로 교회에 다니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굶아터졌던 상처가 아주 조금씩 나고 있다.

“처음에는 교회 가는 것도 무서웠어요. 제가 다니던 학교 친구들이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막상 교회에 와보니 선생님들(고등부)이 너무 친절하시고, 교회 친구들도 엄청 반겨주더라고요. 학교는 친구들 때문에 정말 가기 싫었는데 교회는 선생님과 친구들을 보러 꼭 오게 돼요. 학교에 이런 친구들이 있었다라면 자퇴하지 않았을 거예요.”

학교는 가고 싶고, 즐겁고, 영과 육이 성장하는 곳이어야 한다

소망이와 사랑이의 말처럼 요즘 학교는 악으로 물든 사회의 축소판 같다.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끔찍한 일들이 학교 안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 범죄 소식이 뉴스를 도배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지적장애인 여학생에게 ‘장난고백’을 하라고 시키는 아이들, 같은 학교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서 촬영하고 구경한 것도 모자라 인터넷에 배포한 남학생들, 자신의 전 남자친구를 만난다는 이유로 친구를 담뱃불로 지지고, 옷을 벗겨 사진을 찍은 소녀 등 이 모든 일들이 청소년들에 의해 학교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여기에 학업에 대한 중압감



스쿨체인저스는 매주 함께 모여 학교의 변화와 복음화를 위해 말씀을 나누고 기도한다.

과 성적 스트레스, 집단따돌림 같은 학교폭력 문제까지 더해져 학교를 떠나거나 떠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한두 명이 아니다. 오죽하면 학교공포증까지 생겼을까? 학교공포증은 대수롭게 여길 만한 가벼운 증상이 아니다. 학교 자체를 거부하는 것도 모자라 두통이나 복통, 무기력감, 수면장애 등의 신체증상을 호소하기도 한다. 학교생활 스트레스가 심리적, 신체적, 인지적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의 학교공포증 증상을 단순한 회피행동으로만 인식해서는 안 된다. 증상이 심각해지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올해 발간된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10대 청소년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다. 청소년 사망원인의 30.9%나 차지한다. 10대들의 자살 동기는 ‘정신적 어려움’이 44.2%로 가장 높다. 청소년들이 겪는 정신적 어려움의 원인이 대부분 학교생활에서 비롯된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2017년 3월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유형별 상담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학업 및 진로(27%)’, ‘대인관계(24%)’ 문제로 상담을 받는 경우가 많다. 청소년들이 상담을 받는 내용을 살펴보면 교우관계, 집단 따돌림, 무섭거나 싫어하는 교사와의 만남에 대한 불안감 등을 호소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거의 대부분 학교생활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물론 학교는 학생들에게 무조건적인 즐거움

주는 곳은 아니다. 그렇다고 학교가 지옥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학교는 가고 싶고, 즐겁고, 영과 육이 성장하는 곳이어야 한다.

학교를 변화시키는 세 가지 방법

지금 우리나라 학교에는 서로 사랑하고, 돕고, 나누는 교회 문화를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시급하게 필요하다. 세상적인 문화에 물든 학교를 교회문화로 변화시키는 크리스천 청소년들 말이다. 온누리교회 차세대사역본부에서 이 같은 일을 실천하고 있다.

차세대사역본부 파워웨이브에서는 학교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을 세웠다. 바로 ‘스쿨체인저스(The School Changers)’다. 스쿨체인저스는 온누리교회 청소년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학교를 위해 기도하고, 예배가 없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영적인 변화의 주체가 되기 위해 만들어진 기도운동이다.

스쿨체인저스에 입단한 청소년들은 그 이름에 걸맞게 각자의 학교에서 학교를 위해 기도하면서 학교를 변화시키고 있다. 스쿨체인저스 기도모임은 서빙고, 양재, 수원 온누리교회를 중심으로 시작됐다. 서빙고 온누리교회는 한 달에 한 번 넷째 주 토요일에 스쿨체인저스 약 20여 명이 모여 학교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학교 160여 개에서 받은 기도제목을 놓고 부르짖고 있다. 양재 온누리교회는 매주 토요일 오후 차세대 교역자와 교사, 30여 명의 학

생들이 모여 각자 학교의 변화와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24개 중학교에서 34명, 33개 고등학교에서 41명이 참가하고 있는데 이들은 각자 다니는 학교에서 기독교 동아리를 개설하거나 학교중보기도모임을 진행하고 있다. 수원 온누리교회에서도 중학교 6개, 고등학교 5개 총 11개 학교에서 30여 명의 학생들이 기독교 동아리를 만들어 기도의 씨앗,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 다른 캠퍼스에서도 상황에 맞춰 자체적으로 학교를 위한 기도모임을 이어가고 있다.

믿지 않는 다른 친구들이나 선후배 등과 함께 할 수 있는 교회 문화들도 참 많다. 일대일 제자양육도 그 중 한 가지다. 동반자와 양육자가 일대일 교제를 통해 말씀을 먹고 마시며 서로의 삶을 나누는 과정을 학교 친구와 함께 해 볼 수 있다. 그것을 ‘또래 일대일 제자양육’이라고 이름 붙이고 싶다. 동아리나 반별로 두 명씩 짝을 지어 서로의 동역자가 되어주는 것이다. 부족한 과목을 보완해줄 수도 있고, 서로의 고민을 나눌 수도 있다. 무엇이든 부족하고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면 된다. 할 수만 있다면 선후배가 짝을 짓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교회 공동체나 순, 다락방별로 봉사과 구제에 힘쓰는 문화를 학교에 적용할 수도 있다. 동아리나 학급별, 혹은 마음 맞는 친구들끼리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다. 교회에서 하는 ‘원데이 아웃리치(Oneday outreach)’에 학교 친구들을 초대하는 것도 좋다. 의무적으로 봉사활동 점수를 채워야 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시너지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하는 온라인에서도 교회문화가 빛을 발할 수 있다. SNS 계정에 묵상한 말씀, 그림, 영상 등을 업로드하면서 가슴 따뜻해지는 나눔을 실천하는 것도 좋다. 누구든지 게시물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 글을 올리는 것도 좋다. 감사한 일이나 행복한 일, 좋아하는 노래나 영화, 맛있는 음식점 등 누군가와 나누면 좋은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크리스천의 역할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칭찬릴레이를 하는 것도 탁월한 선택이다. 친구의 SNS 게시물에 진심어린 격려와 응원의 말들을 달아주면 분명 그 친구의 표정이 밝아지고, 그 밝아진 표정 덕분에 학교가 행복한 곳으로 변화될 것이다. 학교가 행복한 곳으로 변화되면 다음 세대 우리나라와 민족, 교회의 미래가 찬란하게 빛날 것이다.

융합선교 현장을 가다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다!

융합선교 시범지역 서부 아프리카의 변화 그리고 희망



신현승 장로
(선교분과위원장)

온누리교회 선교는 ‘융합선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융합선교는 모든 동원 가능한 인적, 물적 자원(CGNTV, 인터넷 등)을 선교지의 교회나 교단에 맞춤형으로 연결시켜 현지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데 목적을 둔다. 더 나아가 현지 교회가 스스로 선교할 수 있도록 돕는데 그 의의가 있다. 온누리교회는 5년 전 융합선교를 시작하면서 일본, 동남아시아, 중동, 서부 아프리카 이슬람권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였다. 나는 몇 달 전 선교현장에서 융합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김홍주 선교본부장, NGO 더멋진세상의 김광동 장로, BEE(성경영장교육원)의 서부 아프리카 담당 김용달 선교사와 함께 코트디부아르와 세네갈을 방문했다.

왜 서부 아프리카인가?

온누리교회 선교본부에서 서부 아프리카를 융합선교 시범지역으로 정한 이유가 있다. 바로 서부 아프리카 지역이 북쪽으로부터 남하하고 있는 이슬람과 접전하고 있는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교사들의 도움이 가장 많이 필요한 곳이다.

코트디부아르도 그 중 하나다. 코트디부아르의 인구는 2,500만여 명이고, 공식적인 행정 수도는 ‘아무수크로’이다. 그러나 ‘아비장’이 실질적인 수도 역할을 하고 있다. 종교 분포는 이슬람교 38%, 기독교 32%, 토속신앙이 12%이다. 이곳에서 온누리교회는 아비장 한인교회와 함께 융합선교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 아비장 한인교회는 작은 교회들을 돕고 선교에 헌신하는 교회이다. 2000년대 초 수년간 이어졌던 코트디부아르 내전 속에서도 철수하지 않고 그곳을 묵묵히 지켰던 교회이다. 코트디부아르에 100여 개의 교회를 개척하기도 했다. 이 교회들을 중심으로 코트디부아르 장로 교단이 세워졌고, 사역자 배출을 위한 IPTEC 신학교도 설립되었다.

아비장 한인교회는 BEE와 연결되어 있다. BEE는 아비장 한인교회 교인들과 IPTEC 신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진행하고 있다. IPTEC신학교에는 BEE가 정식과목으로 채택되어 있다. 아프리카 교회의 가장 큰 약점은 말씀 훈련에 약하다는 것이다. BEE는 앞으로 아프리카 교회가 성령과 말씀 안에서 튼튼하게 세워지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BEE는 아비장 한인교회를 통해 AOG(Asse



온누리교회는 서부 아프리카에서 융합선교를 하고 있다.

mby of God, 하나님의 성회, 교단 교인 약 56만 명)을 소개받아 그 교단의 목회자들을 훈련하는 일도 담당하고 있다. AOG교단의 경우 금년도 6월 11일 총회장을 포함한 68명의 교단 리더십들이 ‘BEE 인도자 훈련 과정’을 마쳤다. 훈련받고 변화된 이들이 이웃 국가인 부르키나파소, 기니, 기니비사우, 세네갈 등지에서 활동하는 AOG교단 동료들에게 온누리교회와 BEE 사역에 대해 알리고 있다.

두란노해외선교회(TIM)는 코트디부아르 아비장에서 어린이사역을 중심으로 ‘교회개척 사역’을 하고 있다.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와 CMN은 아웃리치를 통해 두란노해외선교회의 사역을 돕고 있다. 아프리카는 속식과 이동이 열악한 지역이다. 그래서 아비장 한인교회는 온누리교회 아웃리치팀이 두란노해외선교회와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많은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현지 한인교회, 선교사와 함께 동역하는 아름다운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 두란노아버지학교, 두란노어머니학교 등 온누리교회 사역들이 현지 교회들에게 소개될 예정이다. 앞으로도 온누리교회 융합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코트디부아르 땅 위에 널리 퍼져나갈 것이다.

고립되었던 마을에 생긴 엄청난 변화 NGO 더멋진세상과 세네갈 본나바마을

우리는 코트디부아르에 이어 세네갈을 방문했다. 세네갈은 인구가 1,600만 명 정도이다. 수도는 ‘다카르’다. 인구 94%가 무슬림인 이슬람 국가이다.

우리는 NGO 더멋진세상이 사역하고 있는 세네갈 본나바마을을 방문했다. 나는 이번 방문을 기점으로 NGO사역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다. NGO사역에는 선교의 열매가 없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어왔다. 그렇기 때문

에 NGO 더멋진세상의 사역이 모자보건(어린이와 자녀의 심신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일과 건강에 장애가 있거나 그럴 위험이 있는 경우 도와주는 일)에 특화되어 있긴 하지만 일반 NGO 단체와 크게 다를 바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NGO 더멋진세상의 사역은 NGO 단체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었다.

본나바마을은 100% 무슬림 지역이다. 무슬림 지역 선교에 대한 수많은 역사와 이야기가 있다. 어느 지역은 100년 동안 사역했는데 열매가 없다는 보고도 있다. 그만큼 복음에 대한 마음이 단단히 닫힌 곳이 무슬림 지역이다. 이곳을 복음화시키기 위해 여러 방법들이 동원되고 있다. 본나바마을에서 실시하고 있는 NGO 더멋진세상의 사역은 선교 제한 지역에서의 선교 가능성을 보여주는 실제 사례가 될 수 있다.

본나바마을은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어느 정도 알려져 있다. 외부와 동떨어진 사막 한가운데 있는 아주 가난한 마을에 NGO 더멋진세상이 찾아가 그들이 자립하고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줬다.

본나바마을은 4개의 촌(촌장 모두가 일가친척)으로 구성되어 있다. NGO 더멋진세상은 각 촌에 우물을 파주고, 촌장의 권위를 세워 줌으로써 그의 마음을 얻었다. 또한 마을 주민들에게 양계교육을 시키고 병아리도 분양해주었다. 농업기술을 전수해 주기 위해서 시범 농장도 운영을 시작했다. 마을 촌장의 아들에게는 별도의 시범농장을 직접 운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촌장의 아들에게 특혜를 주는 이유는 그가 앞으로 본나바마을의 리더로 세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NGO 더멋진세상은 마을 청년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청년들이 자립의 도구를 가질 수 있도록 제빵 기술을 가르쳐 주었다. 일부 청년은 시내 빵집으로 취업해 나갔

다. 또한 촌장 아들을 한국으로 초청해서 새마을교육을 받게 했다. 촌장 아들이 마을로 돌아와 청년모임을 만들어서 마을을 청소하고 가꾸어 가는 것을 봤다. 그는 한국 방문에서 본 나바마을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 본나바마을 촌장의 아들은 NGO 더멋진세상에 대해 우호적이며 사역의 큰 지원자가 되었다.

NGO 더멋진세상은 아이들을 위해 본나바마을에 초등학교와 중학교도 설립했다. 우리가 방문했을 때는 고등학교를 세워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다. 자녀 사랑에 대해서는 세상 어느 부모든 똑같은 마음인 것 같다. 본나바마을 사람들은 자녀들이 배움의 기회를 갖는 것에 대해 크게 기뻐하고 있다.

본나바마을이 더 멋진 마을로 변화된 소식을 듣고 수많은 외부인들이 본나바마을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보다 주민이 3,000명도 정도 늘었다. 이제 주민이 8,000명 정도에 달하는 제법 큰 마을이 되었다.

세네갈 이곳저곳에서 본나바마을 같은 더 멋진 마을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해오고 있다. 그러나 NGO 더멋진세상 혼자만의 힘으로는 요청하는 모든 곳을 더 멋진 마을로 만들어 줄 수 없다. 그들 스스로 더 멋진 마을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나의 모델을 보여줘야 한다. 그것이 바로 NGO 더멋진세상의 역할이다.

척박한 한국 땅에서 ‘성공이 아니라 섬김의 삶’을 살았던 서서평 선교사의 아름다운 섬김 이야기가 세월이 지날수록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 것처럼 NGO 더멋진세상의 본나바마을 섬김이야기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장차 귀한 생명의 열매로 맺히리라 기대한다.

세네갈을 복음화시키는 일은 어쩌면 이슬람이라는 종교의 제약 때문에 1900년대 조선보다 어려운 상황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더 많은 세월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한번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다”고 한 말씀처럼 세네갈 땅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 뜨거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한다.

미래의 교회는 미국, 유럽 등 북반부 교회들이 선교를 이끌어 온 것과는 달리 남반부 교회, 즉, 아프리카와 남미 교회들이 부흥하고 성장해서 이끌어 갈 것이라고 많은 선교학자들이 예상하고 있다. 서부 아프리카도 이슬람 세력과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부흥해 나갈 것이다.

온누리교회의 선교는 현지 교회와 교단들과 겸손하게 협력하고,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선교에 헌신할 수 있도록 돕는 촉매역할을 할 것이다. 그들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역량과 은사를 하나로 묶는 융합선교의 모델을 계속해서 만들어갈 것이다.

‘러브소나타 구마모토’ 참가자 모집

10월 10일 ‘러브소나타 한일 합동기도회’ 개최

러브소나타 구마모토에 참가하고 싶은 성도들은 서둘러야겠다. 벌써 C팀은 접수를 마감했고, A팀(5일 오전 9시 인천 출발, 8일 오후 3시 후쿠오카 출발)과 B팀(5일 오전 9시 인천 출발, 8일 오후 8시 30분 후쿠오카 출발)만 접수를 받고 있다.

러브소나타 구마모토는 오는 11월 6일과 7일 일본 구마모토 시민회관시어즈홀유메홀·대홀에서 ‘Together 다함께’를 주제로 막 오른다. 11월 6일 오전 교회세미나를 시작으로 같은 날 저녁 가스펠나이트, 7일 오전 전국실행위원회 조찬회, 리더십 포럼 한일교류조찬회, 7일 저녁 러브소나타 구마모토 집회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참가신청은 러브소나타 서울본부 홈페이지(www.lovesonata.org)나 전화(02-749-1149)로 하면 된다. 참가비는 89만 원(접수비 20만 원).

러브소나타 구마모토를 앞두고 아주 뜻 깊은 기도가 열린다. 오는 10월 10일 일본 요도바시교회에서 개최되는 ‘러브소나타 한일 합동기도회’가 바로 그것이다. ‘하나의 기도’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기도회에서는 이재훈 담임목사와 역대 러브소나타 실행위원 등이 참석한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러브소나타 구마모토 포스터.



구마모토 기·도·제·목

- 9월 22일(주일) 러브소나타 구마모토를 통해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 9월 23일(월) 구마모토 교회 지도자들에게 새 힘과 소망이 부어지도록
- 9월 24일(화) 가스펠나이트를 통해 다음 세대에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지도록
- 9월 25일(수) 이재훈 목사님께서 꼭 필요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 9월 26일(목) 모든 봉사자들이 구원의 통로가 되는 기쁨을 누리도록
- 9월 27일(금) 집회에 성령 충만한 은혜가 가득 넘쳐나도록
- 9월 28일(토) 집회 기간 중 날씨와 환경, 안전을 지켜 주시도록

10월 6일은 대중교통 이용하는 주일

교회주차장 주차스티커 발급받은 차량만 이용

10월 6일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일이다. 이날은 자동차는 집에 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교회에 와야 한다. 이날 교회주차장은 사전에 주차스티커를 발급받은 차량만 이용할 수 있다. 그 대상은 노약자, 장애인, 다자녀 부모 등이다. 이날 이

존역과 서빙고 온누리교회, 양재역과 양재 온누리교회를 오가는 셔틀이 운행된다. 대중교통 이용하는 주일은 온누리교회 환경캠페인의 일환이다. 온누리교회는 자연과 환경을 아끼고 사랑하기 위해 성도들에게 주일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일회용품을 쓰지 않기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바로 잡습니다

9월 8일자 신문 10면에 보도된 ‘제1회 르완다 아버지학교 개최’ 기사의 르완다 지부장의 이름이 김흥국이기에 바로잡습니다.

새가족 등록을 축하합니다

교적번호	성명	공동체	교적번호	성명	공동체	교적번호	성명	공동체	교적번호	성명	공동체
1137082	임미라	푸른누리	1137116	정종희	인천 서누리	1137148	신예림	허브	1137177	허우리	SNS
1137083	정영선	양재	1137117	김민희	대전 남누리	1137149	우정윤	허브	1137178	박준홍	SNS
1137084	김영국	영등포구로	1137118	신희정	수원 서누리	1137150	이하진	허브	1137179	정민수	SNS
1137085	이호정	강서	1137119	이윤영	수원 서누리	1137151	최은주	수원 남누리	1137180	정재란	강동 믿음
1137094	오선민	-	1137120	윤민기	수원 북누리	1137152	박보균	인천 서누리	1137181	김지아	홍산
1137095	진성현	서초A	1137121	박주성	서초C	1137153	이한우	서대문	1137182	신명옥	강남A
1137096	김연호	SNS	1137122	지동준	-	1137154	송준화	대전 드리머스	1137191	노윤지	도곡 Point5
1137097	김은아	SNS	1137123	오수경	여호수아	1137155	남연경	대전 드리머스	1137192	이승백	김정호
1137098	김상현	SNS	1137124	최현용	J4U	1137156	박종현	대전 드리머스	1137193	강민우	부천 소망
1137099	조현승	SNS	1137125	허성우	J4U	1137157	박주연	중종로	1137196	권민진	특별한초대
1137100	안솔지	SNS	1137126	박 현	J4U	1137161	이병익	여호수아	1137197	이종호	평택
1137101	구도연	SNS	1137127	장예진	J4U	1137162	김보경	허브	1137198	김정후	양지 동누리
1137102	이상욱	SNS	1137128	서수진	J4U	1137164	조예란	W	1137199	김용근	부천 믿음
1137103	김선우	SNS	1137129	차종운	J4U	1137165	이준기	W	1137200	이사랑	강서
1137104	김정현	SNS	1137130	양동원	양지 서누리	1137166	김미경	인천 동누리	1137201	김지원	한강
1137106	박시온	영등포구로	1137131	김다솔	대전 드리머스	1137167	이병익	대전 남누리	1137202	김호윤	양재
1137107	박은혜	인천 미추홀	1137132	권기형	대전 드리머스	1137168	조연우	OEM	1137203	조현경	교양은평
1137108	이나영	서초C	1137133	김미소	인천Web	1137169	이민규	OEM	1137204	김성준	허브
1137109	이정미	양지 서누리	1137136	김순천	강남A	1137170	이예빈	SNS	1137205	조현민	대전 드리머스
1137110	이가영	OCC	1137142	남동원	남양주B	1137171	최소진	SNS	1137206	편예림	대전 드리머스
1137111	김홍환	강촌	1137143	구명옥	대전 남누리	1137172	김경서	SNS	1137207	김해란	부천 소망
1137112	라혜린	수원 SEED	1137144	이세영	교양은평	1137173	한지은	SNS	1137208	임정원	허브
1137113	김규형	서빙고	1137145	구원선	대전 드리머스	1137174	송해니	SNS	1137209	이주홍	여호수아
1137114	남기완	양지 동누리	1137146	정은희	대전 드리머스	1137175	윤예신	SNS	1137210	김세훈	여호수아
1137115	김현서	무공동체	1137147	백은혜	대전 드리머스	1137176	조혜빈	SNS	1137211	김지혜	여호수아

“김혜원 양을 위해 기도해주십시오”

덴기열에 의한 코마상태 중환자실 입원 중

지난 9월 15일 김사야 선교사(온누리교회 캄보디아 파송선교사)의 딸 김혜원(19세) 양이 코마상태(무의식 상태)에 빠져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한국으로 급히 이송됐다. 김혜원 양은 지난 9월 7일 덴기열로 인해 갑작스럽게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김혜원 양은 캄보디아 로열프놈펜병원에 입원했지만 상태가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2000선교본부는 김혜원 양을 지난 15일 신촌 세브란스병원 중환자실로 이송해서 정밀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김혜원 양은 아직까지도 의식이 없고, 뇌기능이 저하된 상태이다. 후원: 040001-04-050879(국민은행)

관계기술훈련 참가자 모집

9월 25일~12월 18일 서빙고 한동홀

2019 관계기술훈련 트랙1 ‘기쁨의 정체성’ 참가자를 모집한다. 9월 25일부터 12월 18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12시 30분 서빙고 온누리교회 한동홀에서 진행된다.

관계기술훈련(Relational Skills Training)은 ‘운운한 보호자가 되기 위한 19가지 관계기술’을 익히는 훈련이다

온누리교회 회복사역 관계기술훈련 전문가 최용준 목사와 권용갑 목사가 강의한다. 11월 23일과 24일에는 Acts29비전빌리지로 수련회를 간다. 참가신청은 온누리회복사역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문의: 010-9276-9220(강화찬 총무) 010-5191-4186(김민자 집사)

헬로맘스쿨 수강생 모집

10월 11일~11월 22일 시온홀

‘헬로맘 임신 출산후 스쿨’ 수강생을 모집한다. 10월 11일부터 11월 22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서빙고 온누리교회 시온홀에서 진행된다. 백은실 강사(CGNTV 강사), 강미향 목사(헬로맘 담당 목사), 박은정 교수(웨스트민스트 상담대

학원), 유병훈 의사(전중대병원 소아과 과장), 윤혜숙 사모(두란노어린이 성경번역), 이향순 작가(성경동화 예수님)저자)가 강의한다.

참가신청은 10월 18일(금)까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6만원. 문의: 010-3741-1200

두란노 어머니학교 111기 참가자 모집

두란노 어머니학교 111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11월 13일부터 12월 11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시온홀에서 열린다. ‘성경적 여성상의 회복’, ‘아내의 사

명’, ‘자녀양육’ 등을 주제로 5주 동안 진행된다. 수강신청은 10월 7일(월)부터 11월 19일(화)까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12만원. 문의: 02-2182-9114

서빙고 새가족 만남의 잔치

일시: 9월 29일(주일) 오후 5시~7시 20분(식사제공) /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지하 2층 시온홀 / 대상: 5월 9일~9월 7일까지의 새가족 8주 과정 수료자

가정사역	양정국	박용구	서빙고	한정선	김성희	김광석	장현호
강해전	이은순	손화성	김현형	김정민	김정민	서지우	한강
김미영	이은정	윤희광	김서윤	신용산	계승도	유영일	안영화
안인선	이종락	정선희	정성남	광경열	김동형	윤다솜	최원원
			최정숙	김민식	김태훈	임산	S브릿지
김춘	권영신	마포	성동광진	김민석	김진찬	김소현	김예나
김용환	권영신	권해경	김유정	남현숙	신성녀	김정숙	김용진
김윤정	노세민	김유진	김정민	이수진	오성순	황인철	김재연
이혜리	유해준	박하철	김정후	이용서	유승윤	김준호	김지형
주진경	이수현	윤남영	김지희	이정근	이경민	이종운	박주연
		제준남	박민정	이현애	이현우	최수미	방영중
고양은평	노원	김윤정	북누리	한희정	이수	김재연	김형숙
김애란	김윤정	북누리	손순태	성북	김지훈	노형재	장동규
이세영	동대문중앙	김희경	서대문	박선미	송정숙	이한오	정경희
이승원	김희경	서대문	박선미	송정숙	이한오	정경희	정지혜
관악금천	동작	고윤상	김 선	정상근	정인덕	전계서린	여의도
김해란	김래경	김부자	배란희	배용기	김민희	김지혜	이은

■ 양재 창조과학선교팀 스태프 간증



/ 권해옥 성도(양재 창조과학선교팀)

지으신 분도 하나님,
키우시는 분도 하나님

양재 창조과학선교팀에서는 한 학기에 한 번씩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뒷동산 과학소풍’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창조관과 과학관을 친근하고 즐겁게 심어주기 위해 양재 온누리교회 뒷동산에 있는 식물들을 이용하기로 했다. 이번 학기 첫 수업은 서빙고 창조과학팀에서 지원 나오신 오경숙 박사님의 강의였다. 어린이 창조과학 전문 강사다운 실력으로 식물 뿌리에 대해 쉽게 알려주셨다. 이어서 김경형 선생님의 삼투압 실험 시간. 소금물 속에 담긴 계란의 반투막 겹질을 통해 수분이 이동함으로써 팽팽했던 계란이 조그맣게 줄어드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다.

이론으로 무장한 꼬마박사들이 본격적인 뒷동산 탐험에 나섰다. 첫 코너는 빨간 무 심기. 어린이들이 빨간 무가 자라는 과정을 계속 지켜볼 수 있게 이름표를 붙였다. 다 자란 빨간 무를 먹으며 아이들은 자신들이 심은 씨앗이 앞으로 어떻게 자랄 것인지에 대한 기대감을 가졌을 것이다. 두 번째 코너는 뿌리 관찰하기였다. 모종삽으로 각자 세 개의 식물을 뿌리째 캐낸 다음 뿌리 모양에 따라 곧은 뿌리와 수염뿌리로 분류해 붙여도록 했다. 나는

이 코너를 준비하기 위해 식물 전문가인 김종명 선생님(서빙고 창조과학팀)을 초빙해서 미리 뒷동산 답사를 하고, 식물마다 이름표를 찾아 구분했다. 비장의 무기로 준비한 ‘자리공’의 팔뚝만한 저장뿌리와 ‘만손초’의 공기뿌리가 아이들의 관심을 사로잡았다.

뒷동산 과학소풍에 참여한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을 보며 생각했다.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요, 키우시는 분도 하나님이리라. 한 영토에 뿌리 내리고 자라는 나무와 꽃들도 저마다의 색깔과 방식이 주어졌다. 그런데 환경에 맞춰 자신의 유전자와 형태를 바꿔간다는 진화론의 허구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땅 깊이 뿌리를 박고, 기어가고, 살찌가는 각 식물의 뿌리를 되새겨 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연의 의미가 아니겠는가. ‘자연(自然)’의 뜻은 ‘스스로 자, 그러할 연’이다. 스스로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 자연인가? 과학소풍에서 한바탕 삽질이 끝난 다음 주 뒷동산을 다시 찾았다. 아무 일 없었던 듯 다시 살아난 풀과 산야를 보면서 생각했다. 그 뿌리를 알지 못하면 ‘스스로 그렇게 있다’고 할 것이고, 그 뿌리와 지으신 신비를 알면 ‘참 아름다운 하나님의 솜씨로다’라고 고백할 것이다.

■ 양재 헬로맘스쿨 스태프 간증



/ 김혜정 총무(양재 헬로맘스쿨)

‘나’라는 존재에서
‘엄마’로서의 정체성 발견

자녀 중심의 삶을 살다 보니 나를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과 막연한 미래에 대한 고민이 나를 짓누르고 있었다. 육아가 마치 긴 터널 같이 답답하고 외로운 시간처럼 느껴졌다.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다른 엄마들도 겪는 문제임을 알고 있었지만 힘들고 어려운 것은 어쩔 수 없었다. 힘든 시간을 보내던 나는 양재 헬로맘스쿨에서 만난 지체들과의 교제를 통해 위안을 받고 큰 힘을 얻게 됐다. 비슷한 시기를 겪고 있는 지체들과 함께 예배, 기도, 찬양, 나눔을 함께 하다 보니 어느새 조금씩 성장해가는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나’라는 존재에서 ‘엄마’로서의 정체성도 발견할 수 있었다.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이 많았다. 출산 전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나의 연약함과 죄들이 아이를 낳고 힘든 상황에 놓이자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로 인해 남편과의 갈등이 심해지고 상처 받는 날이 많았다. 하지만 양재 헬로맘스쿨을 통해 남편을 이해하게 됐고,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게 됐다. 또한 가정과 육아 전문가들, 심리상담 교수님의 강의를

통해서 ‘관계의 문제는 상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처와 왜곡된 생각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 그렇게 차츰 변화되자 남편과의 갈등도 조금씩 줄어들고 내 마음에도 회복이 일어났다.

육아에 대해서도 세상의 기준으로 아이를 잘 키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 안에서 키워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하나님의 기업인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길러야 하는 청지기의 사명 또한 확인하게 되었다. 치열한 경쟁과 죄악이 가득한 약육강식의 세상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양육할 것이다. 여자의 인생에서 출산과 육아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누군가에게는 자기를 잃어버리는 소모의 시간으로 치부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이 시간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새로운 소명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다.

양재 헬로맘 임신 출산후 스쿨
일시: 9월 27일부터 11월 15일까지
문의: 010-8889-6857

■ 아름다운동행 191기 수료 간증



/ 이용영, 김예원 가정(가정사역공동체)

변화를 만들어가고자 한다

결혼한 지 1년이 안 된 우리 부부를 아껴주시는 분들의 권유로 아름다운동행 191기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가정 안에서 배우자의 역할과 사랑에 대한 각성, 되새김의 효과 정도를 기대하고 시작한 프로그램이었지만 우리는 어느덧 주변에 아름다운동행 수강을 강권하는 부부가 되었다.

8주 동안 검증된 내용의 강의와 코치님 부부의 인도로 조원들과 진솔한 나눔을 했다. 한 주 동안 배우고 나눈 내용들은 부부의 삶 속에서 실천하고, 반드시 집 밖에서 부부 대화의 시간을 갖는 과제를 수행해야 했다. 매일 반복되는 대화나 자녀의 방해에서 벗어나 부부가 함께 데이트하며 대화를 나누는 시간은 부부의 친밀도를 높여주고, 대화의 질을 높여주는 유익한 과정이었다.

매주 부부관계를 진단하고, 소통을 통해 친밀감을 회복하며, 원가족 등 어린 시절 나눔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돌아보는 시간도 가졌다. MBTI, DISC 성격검사와 사랑의 언어테스트를 통해 서로의 다름과 닮음으로 인해 겪는 갈등들도 파악할 수 있었다. 우리 부부는 안정과 신중을 기하는 면이 많은 반면, 주도형 점수가 낮아 서로 이끌어 주기만을 기대하

고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 갈등의 원인을 찾고 대책을 마련해서 이 부분의 갈등을 피할 수 있었다.

비슷한 결혼기간과 연령대에 따라 조가 구성되었다. 각 가정이 안고 있는 어려움들을 나누며 공감대가 형성되고, 우리만의 문제가 아닌 많은 부부들이 겪는 어려움의 과정에 참여 중이라는 것에 위로를 받았다.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다. 처음과 달리 프로그램이 진행될수록 가정의 변화를 위한 애정과 의지를 고백하는 형제들의 모습이 은혜였다. 하나님 안에서 신앙으로 가정을 지키며 더욱 사랑하기를 기도하는 선배 부부들의 고백을 들을 때는 아름다운 희생의 열매를 보게 하셨다.

8주 동안 얻은 연료와 동력을 삶으로 실천하며 변화를 만들어가고자 한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셨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귀한 자녀인 배우자를 더욱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지혜롭게 사랑할 것을 다짐해본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는 길 위에 있는 모든 부부들을 응원한다. 우리의 사랑탱크에 날마다 새 은혜를 부어주셔서 흘러가기를 기도한다.

■ 젊은부부학교 49기 참가자 간증



/ 김재민, 김한주 가정(가정사역공동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오빠~! 이번에는 젊은부부학교에 참여하고 싶어.”

소원을 들어달라는 아내의 말에 마지못해 수락했는데 사실 너무 하기 싫었다. 부부관계도 무난했고, 평화로운 가정이었기에 왜 젊은부부학교에 참여해야 하는지 몰랐다. 아내도 평소 행복하다는 말을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끔 했었기에 의아했다. 3주차가 지나고 4주차를 맞이하는 시점에 나는 아내가 왜 젊은부부학교에 참여하려 했는지 깨달았다. 지금까지 나는 아내와의 관계에 문제가 없고, 행복한 가정이라는 망상에 빠져 살았다. 아내와 다투고 나면 화해하면서 다 풀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나만의 어리석은 착각이었다. 젊은부부학교에 참여해서 그동안 착각 속에 빠져 살던 나 때문에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느꼈다. 미안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아내의 진짜 속마음을 알게 되었다. 아내는 평소 습관처럼 늘 이런 말을 했다.

“나는 오빠가 귀는 잘 들리지 않지만 연젠가 꼭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

아내가 이 말을 할 때면 걸으면 “나도”라고

대답했지만 속마음은 달랐다. “보청기를 꺼도 잘 못 듣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무슨. 아마 평생 듣지 못 할 거야.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으니까”라고 생각했다. 교회에 다니고 있었지만 인본주의적 사상을 갖고 있던 내가 젊은부부학교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 젊은부부학교에 참여하면 할수록 내 마음속 어딘가 뜨거운 물결이 흘러넘쳤다. 조원들과 나눔할 때 코끝이 찡했고, 강의를 들으면서 흘쩍었다. 3주차 마지막 날 무대에 올라가게 되었을 때 비로소 내 자신을 내려놓았다. 마이크를 잡는 순간 나도 모르게 흐느꼈다. “하나님께서 아내를 통해 저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내가 저와 함께 젊은부부학교에 참여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라고 고백했다. 이번 젊은부부학교를 통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느꼈다. 36년 동안 살아온 김재민의 삶을 버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젊은부부학교 50기
일시: 10월 5일부터 26일까지
문의: 010-5681-9533

장로칼럼

작은 밀알, 경기A공동체



김종호 장로
(경기A공동체)

불별더위가 기승을 부린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가을이 성큼 다가왔다. 나는 지난여름 경기A공동체가 한 일들과 은혜에 대해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펜을 들었다.

우리 공동체는 지난 8월, 전국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낮다는 충청북도 보은 지역으로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그곳에서 12개 지역 교회와 차세대 어린이 연합캠프를 섬겼다. 우리가 이들 교회를 섬기는데 온누리교회의 여러 사역팀과 기관들이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셨다. 우선 첫 번째로 충북 보은 지역 교회의 다음 세대를 섬기기 위해 양재 차세대 목회자와 교사들의 도움을 받았다. 우리 교사들과 현지 교사들의 연합으로 교사강습회도 열고, 어린이 연합캠프도 함께 진행했다. 두 번째 도움은 안산M센터 베트남어예배의 도움이었다. 충북 보은에 있는 베트남 다문화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주민 3명의 세례식도 거행했다. 세 번째는 CGNTV의 도움이 있었다. 현지 교회에서 CGNTV가 제작한 영화를 함께 관람했다. 마지막으로 CMN (Christian Medical Network)의 도움도 받았다. CMN 수기팀이 함께 해준 덕분에 충북 보은 지역 어르신들께 수기치료를 해드릴 수 있었다. 함께 연합하고 융합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모른다.

공동체 지체들도 열심히 섬기고 봉사했다. 솔선수범해서 고추따기와 콩밭매기 등의 일

손 돕기에 힘을 보탰다. 마을길 청소, 가가호호 방문 전도, 한방 및 양방 전도사역, 이미용 및 네일아트, 마을노래자랑, 주민초청잔치, 농촌교회 목회자 부부 블레싱, 찬양과 위십 등 현지 교회 형편에 맞게 각 다락방에서는 창의적인 프로그램으로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인지 그 어느 해보다 많은 열매들이 맺혔다. 어느 교회는 평소 출석교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교회에 등록했다고 한다. 무엇보다 농촌교회 목사님들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전해드린 게 가장 큰 수확이다. 더운 날씨와 불편한 환경 속에서도 땀을 뻘뻘 흘리며 수고해 준 공동체 지체들에게 감사하다. 다양한 사역과 차세대 연합캠프까지 감당하고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비용이 채워진 것도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이다.

우리 공동체의 여름 아웃리치는 모두 끝났다. 그러나 우리가 섬겼던 12개 교회의 예배와 양육, 전도를 위해 지속적으로 섬길 예정이다. 주일에 1개 혹은 2개 순이 연합해 보은으로 내려가 함께 예배를 드리기로 했다.

충북 보은 지역은 고령화와 저출산, 이주민, 다문화가족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이곳의 지역 교회와 목회자들은 사명감으로 버티고 있지만, 비전을 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 어떤 교회의 사모님은 실명 위험에 처한 경우도 있고, 교회 재정이 너무 안 좋아 빚만 늘어나는 교회도 있다. 목회자의 건강이 안 좋은 교회들도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충북 보은 지역을 입양하는 마음을 부어주셨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잘 구별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싶다. 선한 영향력을 계속해서 끼칠 수 있도록 경기A공동체 모든 다락방이 작은 밀알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권사칼럼

내 인생의 후반전은 '전도'



유기정 권사
(경기A공동체)

2년 전 둘째인 딸이 오빠보다 먼저 결혼을 했다. 딸의 결혼을 앞두고 여러 가지 준비와 손님들로 우리 집은 북새통이 따로 없었다. 딸이 오랜 유학생을 했었기에 홈스테이하며 지냈던 가정의 미국인 부

부와 미국에 살고계신 친정어머니까지 모두 우리 집에 묵으셨다. 딸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멀리서 찾아온 감사한 손님들이었다. 손님들을 대접하며 결혼식을 진행하느라 시간이 바쁘게 흘러갔다. 바빴지만 귀하고 행복했던 결혼식이 모두 끝나고 우리 집에 묵으셨던 손님들이 차례차례 쉼터처럼 떠났다. 북적거리던 집에는 우리 부부만 남게 되었다. 텅 빈 집을 바라보며 빈 동지 같다는 생각이 들어 우울한 며칠을 보냈다. 그러다 문득 내 인생의 후반전을 좀 더 가치 있게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인생을 가치 있게 보내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라는 마음이 찾아왔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한참을 고민하던 중에 항상 마음속에 부담감으로 가지고 있던 전도가 떠올랐다. 전도를 해야 하는 것은 알지만 쉽게 나서지 못했던 내 모습들이 스쳐 지나갔다. 얼마 전 읽었던 책 <전도 여왕의 전도레시피>를 쓰신 박인숙 권사님의 삶을 본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온누리 전도학교에 등록을 했고, 교육을 받는 10주 동안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다.

전도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며 기본전문을 외우는 것이 무척 힘들었지만 그 전문을 외우며 내 신앙을 돌아볼 수 있었다. 몇 십 년 동안의

내 신앙을 요약한 것 같아 큰 은혜를 받았다. 처음 전도실습을 나갈 때는 겁이 나기도 했다. 누구에게 말을 붙일지 고민하고 막상 다가가서는 버벅거리기도 했다. 거절을 당할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참 행복하고 기뻐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그런 모습을 흐뭇해하시며 바라보실 것 같았기 때문이다.

전도학교 과정을 모두 마치고 수료했지만 아직도 부족함이 느껴졌다. 전도가 일상이 될 때까지 훈련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전도학교 스태프에 지원했다. 스태프로 섬기며 반복 학습을 하니까 조금씩 말문이 트이기 시작했다. 다른 사람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는 것에도 두려움이 사라졌다. 어쩌다 택시를 타면 기사님께도 신앙에 대해 이야기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됐다. 한 번은 우울증을 앓고 있던 한 자매에게 하나님을 전한 적이 있다. 얼마 후 그 자매에게 연락이 왔다. 하나님의 이야기만 들었는데도 자신의 삶에 변화가 생겼다는 전화였다. 기쁜 목소리로 소식을 전하는 자매의 목소리를 들으며 너무나 감사했다. 그 다음날 그 자매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도 보았다.

처음에는 부담감이 컸던 전도가 어느새 내 삶의 일부가 되었다. 전도하는 삶은 내 생활에 큰 기쁨을 안겨준다. 전도를 통해 하나님께 인생의 후반전을 드리기로 했던 내 고백을 떠올려 본다.

전도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싶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너무나 기대가 된다. 더 크신 하나님의 뜻과 은혜에 의지하여 나아가야겠다. 전도를 통해 내 삶을 더욱 풍성하게 채워나가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한다.

신앙에세이



김현실 목사
(남양주 온누리교회)

이번 추석 성묘는 특별했다. 30여 년 전 남편과 나는 3살 된 아들의 손을 잡고 이곳에 왔었는데 어느덧 세월이 훌쩍 지나 첫 손녀와 함께 시아버님 묘소를 다시 찾아왔다. 손녀를 가운데 두고 아들과 남편이 손을 잡고 성묘하러 걸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니 울고 웃었던 30여 년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치며 지나갔다. 그 시간들을 돌아보니 지금까지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느낄 수 있었다.

우리는 시편 128편을 읽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 예배를 드렸다. 시편 128편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 복은 일상이 축복이 된다고 말한다. 네가 손으로 수고한 대로 받는 것이 복이며, 밭상

에 둘러앉은 가족들의 모습을 결실한 포도나무와 어린 감나무에 비유하며 그것이 복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마음에 더 깊이 다가온 말씀은 6절에서 '자손의 자손을 볼지어다'라는 구절이었다. 그 이유는 삼세대가 둘러앉아 드리는 예배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더 큰 이유는 내 나라 내 민족이 평안해야 이 모든 축복이 허락된다는 것이 이 말씀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다.

시편 128편은 성전 순례시 중의 하나이다. 이것은 절기 때 부르는 순례시로써 바벨론 포로 귀환기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던 이스라엘 백성이 불렀던 노래가 절기 때 부르는 것으로 이어져 내려온 것이다.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나라를 잃고 포로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전쟁 중에 가족들이 죽고 또 살아있는 사람들도 뿔뿔이 흩어지고, 포로로 잡혀갔던 가슴 아픈 일들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자식의 자식을 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가슴 속에서 절실히 느끼고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우리 부모님들도 나라를 잃고 일제 치하에서 갖은 고통을 겪었다. 또 전쟁을 겪으면서 가족을 잃고 이산가족이 되어 아직도 그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다. 자손의 자손을 본다는 것은 나라가 있고, 그 안에 평안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임을 우리는 너무나 깊이 공감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축복보다 수고한 대로 받는 것과 자손의 자손을 보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

시편 128편과 짝을 이루는 시편 127편에서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라고 말씀한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다. 내 집, 내 가정의 평안만을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다스리심을 구하여야 한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식민지 통치하에서도 신앙을 타협하지 않고 기도하며 영적 부흥을

일으켰다. 그리하여 선교 한국을 일으켜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는 민족이 되었다. 우리는 부모 세대의 믿음을 본받아, 이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지속적으로 이루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켜야 할 것들이 있다. 상업주의와 물질만능주의,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자기를 자랑하며 욕망 가운데 허덕이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바로 그것이다.

유대 민족은 '돌아오라 돌이키면 살아나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외면했다. 결국 그들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됐다. 이제 우리는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구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 아래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나라와 민족의 평강을 구하여야 한다. 30년, 그 뒤 그리고 또 다른 앞으로의 30년.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평강이 영원하기를 바란다.



주일강단

〈3면에 이어〉

참된 회개(4)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죄가 그만큼 중한 것이고, 우리는 가볍게 여겼던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던 삶이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끔찍한 죄악의 삶인지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슬퍼하며 그 죄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 슬픔을 느끼게 합니까? 그래야 우리가 죄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떠나기 때문입니다. 그 죄가 얼마나 끔찍한 지를 깨달아야 죄를 다시 짓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슬픔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아들을 상실한 하나님의 슬픔을 우리 가운데 일부분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슬픔이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모든 이들에게 부여했습니다. 성령의 사역은 이 마음을 부여하시는 사역입니다.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임하셨을 때 이런 슬픔이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마음이 찢어지는 참된 회개의 눈물

“그러므로 이스라엘 모든 집은 확실하게 알아 두십시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듣고 마음이 찢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들이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행 2:36~37).

그들의 마음이 찢렸습니다. 참된 회개의 영이 그들에게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슬피 우는 참된 회개의 애통함이 복음이 증거 되는 곳마다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찢어지는 참된 회개의 눈물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요, 죄를 사하시는 구세주임이 선포될 때 예수님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방인, 헬라의 많은 사람들, 갈라디아 사람들, 고린도 사람들, 데살로니가 사람들, 빌립보 사람들, 헬라 지역의 수많은 사람에게 마음을 찢는 회개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선교의 역사는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온 슬픈 통곡의 역사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만일 마음을 찢는

회개의 역사가 우리 마음에서 사라졌다면,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 마음이 찢어지는 슬픔이 조금이라도 느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마음을 찢는 통곡과 참회의 슬픔의 눈물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 슬픔은 누군가 대신 흘려주는 눈물이 아닙니다. 각자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 슬픔은 생명력을 주는 슬픔입니다. 세상의 슬픔은 죽음을 가져다줍니다. 절망을 가져다줍니다. 사람의 넋을 빼앗고, 마음을 얼어붙게 만들고, 자신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 슬픔은 생명력을 줍니다. 능력을 줍니다. 소망을 주고, 삶에 의욕을 가져다주고, 자신의 의무를 잘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 주고, 죄를 떠나게 하고,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만들어 줍니다. 또한 이 슬픔은 자신의 죄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죄까지 슬퍼합니다. 한 가지 죄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는 물론이거니와 이 세상의 죄, 다른 사람들의 죄까지 끌어안는 슬픔입니다. 이 시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슬퍼하고 울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이 슬픔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나타납니다.

“복되도다! 슬퍼하는 사람들이여”

“내 눈에서 눈물이 쉬지도 그치지지도 않고 흘러내립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내려다보시고 바라보실 때까지 그럴 것입니다”(애 3:49~50).

우리 안에 있는 죄는 만성 질병입니다. 번번이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참회와 회개의 눈물로 씻어야 합니다. 이 슬픔은 우리의 죄를 사랑하는 마음을 온전히 파낼 정도로 깊이 임하는 슬픔입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의 토양은 깊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슬픔이 깊이 임하지 않으면 마음의 토양이 기경되지 않는 것입니다. 묵은 땅과 같은 우리의 마음, 죄에 오염되어 있는 우리의 마음을

깊이 파헤쳐야 좋은 흙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찢고 깊은 슬픔으로 죄를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파헤쳐 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슬픔은 축복입니다. 이 슬픔은 우리에게 회복을 가져다줍니다.

“복되도다! 슬퍼하는 사람들이여, 그들에게 위로가 있을 것이다”(마 5:4).

왜 슬퍼하는 사람들이 복입니까? 하늘의 위로, 성령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를 애통해하며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는 평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위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른 이들의 죄까지 슬퍼하며 마음을 찢고 애통해하는 자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성령의 위로하심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웃으셨다는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께서 육체 가운데 계실 때에 자신을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올리셨고 그의 경외하심으로 인해 응답을 받으셨습니다”(히 5:7).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서는 지금도 통곡과 눈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회개의 눈물을 흘린 자는 자신의 죄로 인한 눈물에서 그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까지, 마치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자신의 죄로 인한 슬픔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죄로 인한 슬픔으로 기도하셨듯이 그렇게 슬퍼하고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늘의 위로와 평화를 경험할 것입니다.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경험할 수 없는 위로의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돌아키십니다. 우리를 향한 분노를 돌이키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돌이키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로 다시 향합니다. 그 얼굴을 드시며 우리에게 돌아키십니다.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관계를 친밀한 친구로 돌아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동행하도록 초청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기쁨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강퍽한 마음이 찢어지고, 참된 회개의 슬픔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의 삶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의 거룩한 삶입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기교



김철희 목사
(일본어예배 담당)

온누리교회를 개척한지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일본이다. 일본에 첫 장로 선교사를 파송했고, 해외비전교회도 일본에 가장 먼저 세웠다. 그러나 복음으로 다가간 일본은 여전히 세계 최대의 미전도 단일국가로 남아있다. 선교사의 무덤이며, 심지어 이슬람 선교와 북한선교보다 영적으로 더 어려운 상황이다. 다시 한번 일본선교를 영적으로 진지하게 바라봐야 할 때이다.

수많은 분들이 일본선교를 위해서 기도한다. 나도 20대 초반부터 일본의 복음화를 위하여 철철 흘러 넘치는 눈물의 기도를 드렸다. 2007

년 사이타마에서 열린 동경 러브소나타가 한창 준비되고 있었을 때였다. 온누리교회 전체가 일본 선교에 집중했던 그때 그 일을 나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하용조 목사님께서 일본선교에 집중하시는 모습을 보고 당시 철부지였던 내가 이렇게 질문했다.

“목사님! 정말 일본선교를 하시려나보네요.” 그때 하용조 목사님께서 진지하게 나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지금 장난하는 줄 알아?”

그 이후 러브소나타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일본비전교회와 일본CGNTV, 일본두란노 및 TIM재팬 등이 서로 협력하며 진정한 융합 선교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자칫 그 흐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시대적인 변화 앞에 서 있다. 하용조 목사님께서 장난으로 하지 않으셨던 일본선교가 자칫하면 사탄의 장난에 놀아날 수 있는 위기 가운데 있다. 우리는 지금 정서적으로 너무 일본과 대립각을 세

편지 한 통과 꽃 한 송이

우고 있다. 영적으로 봐야 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상식과 대중매체의 공격을 받아 제대로 중심을 못 잡고 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는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도 제사장과 레위인은 지나갔다. 혹시 우리도 여러 상황 때문에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그냥 지나가려고 하지 않나 자문해 보아야 한다.

오는 9월 28일(토) 오후 1~3시 사이에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인 약 350여 명이 서빙고 온누리교회 비전홀에 모인다. 일본어예배부가 준비하는 일본인 문화전도축제 ‘키즈페스타’이다. 그들 중 95% 이상이 목사와 신부를 구분하지 못하는 미신자들이다. 그들을 위해 일본어예배부에서 문화전도를 준비하고 있다. 한 일 경제전쟁의 한복판에 놓여 있는 지금은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때가 아닐 수 없다.

한 남자가 감옥에 갔다가 출소하면서 아내에게 편지를 보냈다.

“혹시 나를 받아준다면 동네 앞 나무에 노란

리본을 달아주세요”

결과는 어땠을까? 노란 리본이 하나가 아니라 나무 전체를 수놓았다. 나는 성도님들께 제안하고 싶다. 9월 28일 토요일 오후 3시, 키즈페스타에 참석했던 일본인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 편지 한 통과 꽃 한 송이를 그들 손에 들려주면 어떨까? 일본어가 아니라도 상관없다. 따뜻하고 진심어린 한국어로 적힌 편지는 그들에게 진정한 감동과 사랑으로 전달될 것이다. 일본인들은 작은 것에 감동한다. 편지 한 장이 곁들여진 꽃 한 송이가 그들을 천국으로 더욱 바짝 다가가게 인도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모두가 숨고, 아니라고 하고, 다른 방향을 볼 때에 우리가 먼저 일본을 영적으로 대한다면 일본선교의 문이 활짝 열릴 것이다. 여러분이 준비한 편지 한 통과 꽃 한 송이는 그 어떤 것보다 영적인 위력을 발휘할 것이다. 일본은 적이 아니라 영적으로 강도 만난 우리의 이웃이다.

14 온누리신문

2019년 9월 22일(주일) | 제1262호

서빙고 O2.793.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분당 2부 오전 9:00 분당 3부 오전 11:30 분당 4부 오후 1:50 분당 5부 영어예배 오후 4시 경찬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분당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시 분당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분당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분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0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분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분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분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분당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분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최용준 목사 매 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532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신상국 대표(010-7933-5422)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중수 팀장(010-7303-1603) 야베스맘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6:00~8:30 선교관 403호 문의: 정종희 팀장(010-9391-7997)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20 서빙고 한동홀 문의: 김진현 팀장(010-8567-1808)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홀 문의: 김상호 팀장(010-9949-5631) 일본어예배 수요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선교관 302호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30 경찬홀 문의: 김성철 집사(010-3660-7135)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02-3215-3730) 몽골어 주일 14:30 선교관 401호 러시아어 주일 14:00 선교관 301호 네팔어 주일 14:30 선교관 402호/매월 첫주 군포 하나로 센터 아랍어 주일 14:00 본관 B102/매월 첫주 선교관 402호 페르시아어 주일 14:30 선교관 208호 안산M센터(031-491-9650) 몽골어 주일 10:30 Joy 201 / 러시아어 주일 10:00 Onnuri Hall / 네팔어 주일 10:30 Peace 303 / 캄보디아어 주일 10:30 Peace 302 / 미얀마어 주일 10:30 Joy 202 / 필리핀, 파갈루어 주일 10:30 Peace 301 / 태국어 주일 14:00 Peace 303 / 스리랑카어 주일 11:30 Peace 304 / 베트남어 주일 예배 14:00 Peace 301 / 중국어 청년 주일 14:00 Peace 304 다문화 꿈향 주일 11:00 Star tree / 다문화 파워웨이브 주일 11:00 2F Library / 다문화 예꿈 주일 10:30 B105 / 다문화 대형 주일 14:00 4층 Manna hall / 인도네시아어 주일 14:00 Peace 305 / 우즈베크스탄어 주일 14:00 1F StarTree / 파키스탄어 주일 13:00 Peace 305 / 열방예배 9:00, 11:00 4F Manna hall 김포M센터(010-7762-7718) 캄보디아어 주일 11:00 양곡 프라자 빌딩 703호 / 차세대 주일 11:00 양곡 프라자 빌딩 705호 화성M센터(070-8671-8091) 열방예배 주일 11:00/봉사자예배 9:30/네팔어예배 10:30 제2센터/차세대 11:00 302호 평택M센터(031-651-1702) 몽골어 주일 11:30 평택 Love Hall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집사(010-2539-5665) 나지연 팀장(010-3489-2080) 이스라엘 중보모임(살롬이스라엘) 일시: 매주 토 오전 8시~10시 장소: 서빙고 시온홀 문의: 010-8550-7930 대학청년부를 위한 어머니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10:00~12:30 본관 B102호 문의: 추명희 집사(010-8000-4792) 군 선교와 군인대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서빙고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214 마리아행전 중보기도모임 나라와 민족 위해 기도하는 기도부흥운동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신관 3층 드림홀 문의: 여성사역(02-3215-3227) 북한중보기도모임 안내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30분~9시 장소: 선교관 403호 문의: 송용주 형제(010-8591-8236) 병원사역예배/환우기도모임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서빙고 신관 301호 대상: 봉사자 및 환우 중보 요청자 문의: 이재신 팀장(010-4753-3150) Acts29비전빌리지 열방예배 매주 월~금 오전 11시30분~12시 30분 서튼은행(031-331-8182) 서빙고출발 09:30, 양재출발 10:00 비전빌리지(양지)출발 15:00 한터 공동체 예배 탈북민사역에 관심있는 분들을 위한 예배 시간: 매주 오전 10시 장소: 한누리 본부(지하철 9호선 가양역 6번출구, 투썸플레이스 건물 6층) TIM MK 중보기도 모임 시간: 매월 셋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302호 문의: 김명지 간사(010-5017-3146) 아프가니스탄 중보 기도모임 시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30 ~ 12:30 장소: 선교관 202호 문의: 이진숙 집사 010-3212-2664 일.하.세. GUM예배 시간: 매주 토요일 8시 30분 장소: 서빙고 캠퍼스 선교관 101호 차세대 목요어머니기도회 오전 10:30 신관 4층 누리홀	양재 O2.573.9686 주일예배(사랑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7부 9시에 뜨는별 오후 9: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화요성령집회 매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 오후 11: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4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50, 하용조 기쁨홀 문의: 이수준 팀장(010-6398-6022)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30 트리니티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쁨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Toddler 24~48개월(주기철재폴실) Jesus Rock 5세~초등1(충성홀 9:00) Jesus Crew 초등2~초등6(JDS홀 9:00) Jesus Vine 초등1~중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부: 도곡1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도곡1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도곡1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도곡1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예꿈: 도곡1관 꿈터(B동 1층) 꿈팡: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도곡교육관 주일 11:0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11:00 영어 차세대예배 Hope Zone(Newborn~Age4) : 도곡2관(중대부고 5층) : 도곡2관(중대부고 5층) : 도곡2관(중대부고 5층) : 도곡2관(중대부고 5층)	Joy Zone(Grades3~6)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OEM Youth(Grade7~12) :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청년부) 갈렘 청년부 예배: 도곡2관(중대부고5층) 사랑부 예배(장애 학생) 주일 오전 9:00 비전홀B 문의: 이루주 전도사(010-9150-5190)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일시: 주일 오후 2:00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8483-6210 *통역 지원 스페인어예배 설교: Cristian Neira 일시: 주일 오후 2:00 도곡교육관 온유홀 문의: 010-4924-2703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공동체 매주 일 14:00 양재 JDS홀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병원사역예배와 기도모임 장소: 양재 비전홀A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문의: 조현영 팀장(010-3328-6366) *환우중보, 심방, 전도(사랑홀 환우 요청함) 양재 살롬기도회 대상: 나라와 하나 됨과 평화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성도 매주 월 오후 7시 30분 양재 JDS홀 문의: 송세호 팀장(010-8634-9030)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화 10~12시 반 경찬홀 문의: 김은지(010-3285-1726) 차세대 목요어머니기도회 시간: 오전 10:30 본관 B3층 JDS홀 인도중보기도모임 일시: 매월 두 번째 월 오후 7시 30분 장소: 양재 온누리교회 충성홀 문의: 010-2735-3807
부천 O32.322.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7:00/2부 오전 9:00/3부 오전 11:30/4부 오후 2:00/5부 오후 4:00(대청예배)/6부 오후 7:00(부흥예배) 새벽기도 월~토 오전 5:20 분당 차세대 예배 영아부~오전 9:00, 11:30 / 유치부~오전 9:00, 11:30, 14:00 유년부~오전 9:00, 11:30 / 초등1부~오전 9:00 초등2부~오전 11:30 / 유초등부~오후 2:00 중등부~오전 9:00, 11:30 / 고등부~오전 9:00, 11:30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오후 7:30 한사랑예배(탈북민) 매주 오후 2:00 3층 꿈아이홀 사랑부예배(장애인) 매주 오전 11:30 3층 꿈아이홀 어린이영어예배(JEM) 오전 9:00 기쁨홀 중국어예배 매주 오후 2:00 두란노홀	수원 O31.895.6500 주일예배 1부 오전 7:00 / 2부 오전 9:00 3부 오전 11:30 / 4부 오후 2:00 / 5부 오후 7:00 대학청년(주일) 대학부 오후 2시(경찬홀) / 청년부 오후 3시(민음홀) 새벽예배 월~토 오전 5:20(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온누리워십 매주 수 오후 7:30 차세대 주일예배 영아부 오전 9시, 11:30 드림홀 유아부 오전 9시, 11:30 조이홀 유치부 오전 9:00, 11:30 소망홀 유년부 오전 9:00(초1~3), 11:30(초1~2) 사랑홀 초등부 오전 9:00(초4~6), 11:30(초3~4) 경찬홀 소년부 오전 11:30(초5~6) 믿음홀 초등부 오전 9시 비전홀 / 고등부 오전 9시 믿음홀 차세대 영어예배 오전 11:30 비전홀	대전 O42.825.3642 주일예배 1부 오전 9시 분당 / 2부 오전 11:30 분당 젊은예배 오후 2시 30분 분당 대학부 오후 2시 30분 누리홀 주중예배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분당 토요새벽기도회▶ 매주 토 오전 6:0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00 분당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오후 7:30 분당 차세대주일예배 예꿈(36개월~7세) 오전 09:00 꿈팡(초1~초6) 오전 09:00 영아부 오전 11:30 유치부 오전 11:30 유년부 오전 11:30 소년부 오전 11:30 초등부 오전 11:30 중등부 오전 11:30 고등부 오전 9:00	남양주 O31.565.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분당 / 2부 오전 11:30 분당 / 3부(청년) 오후 2:00 분당 / 4부(저녁) 오후 7:00 분당 / 다문화 주일 11:00 4층 온유홀 외국어예배 한디어 토요일 19:00 5층 믿음홀 / 네팔어 토요일 19:00 5층 소망홀 새벽예배 (월~토) 오전 5:20 3층 분당 수요여성예배 오전 10:30 3층 분당 수요부흥예배 수요부흥예배 오후 7:30 3층 분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오전 11:30 2층 예꿈홀 / 유치부 오전 9:00 2층 예꿈홀 / 유년부 오전 9:00 2층 꿈팡홀 / 초등부 오전 11:30 2층 꿈팡홀 / 중등부 주일 오전 11:30 기쁨홀 / 고등부 주일 오전 9:00 기쁨홀	
평택 O31.651.9680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분당 2부 오전 11:30 분당 3부 오후 2:00 분당(대학청년) 주중예배 및 모임 화요기도모임 화요일 오전 10:00 비전홀 수요오전여성예배 수요일 오전 10:30 분당 수요여성예배 수 오후 7:30 분당 차세대예배 예수님의꿈아이 오전 11:30 본관2층 꿈이자라는땅 오전 9:00 본관2층 파워웨이브 오전 11:30 파워웨이브교육관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5:20 분당 외국어예배 몽골어 예배 11:30 평택M센터 Love Hall 인도네시아어예배 11:00 인도네시아 헬터	인천 O32.437.9686 ※예배장소 및 시간에 대한 문의는 목회지원실(032-437-9686)로 연락바랍니다. 성인/차세대/사랑부예배 9/18,15,22,29: 연세대학교 종합관(송도동 162-1) 파워웨이브(중고등부)예배 제너섬 7층(송도동 179-1) 대학청년부, 국제예배 제너섬 7층(송도동 179-1) 주중예배 수요여성/수요저녁/새벽예배: 제너섬 7층(송도동 179-1) 주일예배 성인예배 9시/11:25 오후 1:45 차세대예배 영어/유치/유년/초등/사랑부 11:20, 꿈팡1부 9:00, 파워웨이브1부 9:00, 파워웨이브2부 11:20, 헤븐리키즈 오후 13:50, 대학청년부예배 오후 2시, 몽골어예배 오후 2시	강동 O2.475.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분당 / 2부 오전 11:30 분당 3부(프라미스청년) 오후 2:00 분당 프라미스U대학부 오후 2:00 사랑홀 차세대예배(주일) 예수님의꿈아이(영아부) 오전 11:30 기쁨홀 예수님의꿈아이(유치부) 오전 11:30 두란노홀 꿈이자라는땅(유년부) 오전 11:30 드림홀 꿈이자라는땅(초등부) 오전 11:30 사랑홀 파워웨이브 오전 9:00 사랑홀 사랑부 오전 11:30 경찬홀 주중예배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20 분당 수요오전예배 오전 10:30 분당 수요저녁예배 오후 7:30 분당	양지 O31.331.8171 주일 성인예배 1부 예배 / 9:00 / 2층 김사무엘홀(분당) 2부 예배 / 11:30 / 2층 김사무엘홀(분당) 3부 두드림예배 / 14:30 / 지하1층 박모세홀(대청) 주일 차세대예배 드림씨드(영어) / 11:30 / 2층 드림씨드홀(본당 영상 중계예배) 예수님의 꿈아이(유아) / 11:30 / 지하1층 무어홀 예수님의 꿈아이(유치) / 11:30 / 지하1층 위더슨홀 꿈이 자라는 땅(유년) / 11:30 / 2층 아펜젤러홀 꿈이 자라는 땅(초등) / 11:30 / 2층 스코텐홀 파워웨이브(중·고등) / 11:30 / 지하1층 박모세홀 주중예배 새벽예배(월~토) / 5:20 / 1층 시안홀	

국내 온누리교회 • 서빙고 박종길 목사 (02) 793-9686 (대표) 04428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 양재 이상준 목사 (02) 573-9686(대표) 06752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31길 70 햇불선교센터 • 부천 윤길중 목사 (032) 322-9686 14503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589 • 수원 신기섭 목사 (031) 895-6500 17095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2077번길 80 • 대전 김상수 목사 (042) 825-3642-4 35234 대전시 서구 둔산로 64 온누리빌딩 3-6층 • 남양주 이해영 목사 (031) 565-9686-8 (대표) 11946 남양주시 이문안로 154 진성빌딩 2-5층 • 평택 손신국 목사 (031) 651-9680(대표) 17906 경기도 평택시 평택로 26 2-3층 • 인천 서경남 목사 (032) 437-9686 (대표) 21984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 84번길 24 제너셀 7층 • 강동 노지형 목사 (02) 475-9686 05335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157길 14 나비빌딩 11, 12층 • 양지 도육환 목사 (031) 331-8171 17156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로62번길 20 • 안산 온누리M센터 노규석 목사 (031) 491-9660 15243 안산시 단원구 신현로 8		■기도처 • 태안온누리 임용성 목사 070-8627-7676 충남 태안군 태안읍 경이정3길 10 온누리교회 태안온누리 • 서산온누리 임용성 목사 (041) 665-9686 충남 서산시 쌍연남3길 9 서산온누리교회 • 통화온누리 엄정순 권사 (054) 673-7428 경북 봉화군 명호면 만리산길 613 • 진새골온누리 주수일 장로 (031)-767-2776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진새골길 166 해외 온누리교회 ■ 미서부 • 얼바인 박산웅 목사 1-949-261-9100 17200.Iamboree.Irvine CA 92614 U.S.A. • 로스앤젤레스 이정철 목사 1-213-382-5658 743 South Grand View st. Los Angeles, CA 90057, USA • 샌디에이고 이민욱 목사 1-619-847-4147 8890 Miramar Rd. Suite 275 San Diego, CA 92126 • 산타모니카 정창철 목사 1-213-235-5791 1420 Yale St. Santa Monica, CA 90404 • 팜 김형철 목사 1-671-734-8522 155 Father Duenas St. Mangilao Guam 96913 ■ 미동부 • 보스턴		김철진 목사 1-781-933-7044 73 pine st. Wobum MA 01801 U.S.A. • 네이퍼빌 시카고 이종재 목사 1-630-753-9191 1433 N.Main St. Naperville IL 60563 • 노스 시카고 서재범 목사 1-847-571-8687 10 Deerfield Rd. Deerfield IL 60015 USA • 뉴욕IN2 심상현 목사 1-212-427-2055 401. 7th Ave.(18th Floor) New York, NY 10001 • 뉴저지 Marc Choi 목사 1-201-461-4010 1449 Anderson Ave., Fort Lee, NJ 07024		■일본 • 도쿄 후쿠자와 마키토 목사 81-3-5937-3210 (169-0074) 3-39-7 Kitashinjuku, Shinjuku-ku, Tokyo, Japan • 오사카 이영선 목사 81-6-6121-2015 (542-0083)Naniwa 3F 1-3-19Higasisinsaiabasi Chuoku Osaka Japan • 우에다 하카마타 미키 목사 81-26-821-4566 (386-0032)Nagano-ken Ueda-shi Suwagata 1377-64 JAPAN • 요코하마 니시아마 신이치 목사 81-45-641-6468 (231-0012)Yaomasa Bldg.4F,3-63 Aioi-cho, Naka-ku, Yokohama-shi, Kanagawa-ken, Japan • 야치요 오시하라 마나부 목사 81-47-482-1299 (276-0045)832-2, Oowada, Yachiyo-shi, Chiba-ken, JAPAN • 나고야 정호석 목사 81-52-938-5011 (454-0974) AICHI-KEN NAGOYA-CI NAK-AGAWA-KU SHIMAI-CHO61 EHW DAIA-MOND 2F • 교토 권영환 목사 81-75-748-9303 (615-0854)Nisikyogoku Tsutsumisotocho 1-41(F&2F),ukyo-ku, Kyoto-si		■미북부 • 포틀랜드 이성권 목사 1-503-628-2000 19650 SW Scholls Ferry Rd. Beaverton, OR 97007 USA • 앵커리지 박재영 목사 1-907-569-9191 4801 old seward HWY Anchorage, AK 99503 • 밴쿠버 송영동 목사 1-604-888-0092 19711 88th Ave. Langley, BC V2Y 1Z5 Canada Worship: Pacific Academy Auditorium 10238 168th Street, Surrey ■오세아니아 • 시드니 전현규 목사 61-2-9649-1180, 1190 18 MAIN Ave. Lidcombe NSW2141 Austria • 오클랜드 유원록 목사 64-21-0810-3132 7 Tamdale Grove, Albany, Auckland, New Zealand		■베트남 정재욱 목사 84-8-5412-2773 3SL 20-1 Grandveiw C, Phu My Hung, Q7, HCMC, Vietnam		■중국 • 북경 강부호 목사 86-10-5301-9700 北京市 朝阳区 来 营西路 江大物业 (内地大公司) Beijingshi ChaoyangQu Laiguangying Xilu Jiangdawuye (Dadigongsi) • 단둥 채기석 목사 86-415-313-6811 中国 辽宁省 丹东市 开发区 口岸贸易区 1区 D组 102号 韩国人 教会 王英 ZHONGGUO LIAONINGSHENG DANDONG-SHI KAIFAGU KOU'AN MAOYIQU 1QU DZU 102HAO • 대련 강은수 목사 86-411-8228-5235 辽宁省 大连市 中山区 春海里 春海巷二巷 526路 炮台山终点站 Liaoning-Sheng Dalian-Shi Zhongshan-Qu Chunyuan-Li Chunhaijieerxiang (526lu Paotashan zhongdianzhan) • 상해 박만규 목사 86-21-5422-5801 中国 上海市 闵行区 漕宝路 1243号 3楼888室 Shanghaishi Minhangqu Caobao 1243hao yongweishangwudashu 3lou 388shi • 청도 최영민 목사 86-532-8801-2930 中国 山东省 青岛市 崂山区 香港东路69号 凯旋山庄 27号楼 1楼 网点 Zhongguo Shandongsheng Qingdaoshi Laoshanqu Xianggangdonglu69 Kaixuanshanzhuang27haolou 1lou Wangdian CHINA	
---	--	--	--	--	--	--	--	---	--	---	--	--	--

참가는 분들

◆담임목사

이재훈

국내 온누리교회

◆캠퍼스 담당목사

박종길 이상준 윤길중 신기섭
김상수 이해영 손신국 서경남
노지형 도육환
◆**부목사(전임)**
감미향 강일하 강지영 권영환
권영배 김해영 김경훈 김관수
김대진 김도균 김도윤 김미정
김병조 김상수 김승윤 김성웅
김소지 김승수 김승안 김승훈
김영배 김영장 김요성 김용민
김윤식 김진아 김재석 김정숙
김정순 김경희 김종민 김종아
김종호 김철희 김태용 김현식
김홍주 노규석 노희태 림동홍
문영재 문장원 박시원 박성은A
박성은B 박주필 박성현 박세용
박전홍 박철용 박태원 박형준
배병삼 백인규 변대선 서 현
손정훈 송진국 송영돈 송재호
신동식 신원식 신대바 안광국
양성민 양재경 여성진 오 민
오은규 오유상 원우영 원기배
유수열 유영순 유승현 윤경숙
윤길중 윤석원 윤현구 이강현
이기복 이기원 이기진 이기훈
이길탁 이민욱 이비오 이상진
이서진 이윤재 이원진 이지원
이재원 이재정 이정환 이종현
이준인 이준호 이찬우 이해영
임경원 임용성 전신의 전재표
정성훈 정한호 정현석 정영권
조동욱 조병환 조바람 조준목
조준호 조호영 지대근 최성민
최성석 최승구 최용준 최혁중

소천

9/5(목) 강남E 이기선 성도 부친상 고 이창순
9/7(토) 서초A 박준우 성도 부부상 고 김동락
9/8(일) 브릿지33+ 변해란 성도 모친상 고 장순례
9/8(일) 강남E 김경자 성도 부군상 고 이재국
9/11(수) 강남E 유혜정 성도 모친상 고 한성혜
9/13(금) 관악금천 강창재 집사 모친상 고 현순자
9/14(토) 도곡 이해수 성도 모친상 고 성갑순
9/14(토) 동작 남궁 명선 권사 시모상 고 이명숙
9/14(토) 이천선교 이석희 선교사 모친상 고 김춘옥
9/16(월) 김포 임영애 성도 모친상 고 장재복
9/17(화) 양천 장복순 집사 자녀상 고 장도하
9/17(화) 동작 김경관 성도 부친상 고 김영환
9/17(화) 마포 신명미 성도 부친상 고 박승숙
9/17(화) 마포 신명미 성도 부친상 고 신무식
9/18(수) 송파B 이경우 집사 부인상 고 김정실
9/18(수) 중종로 박명숙 권사 모친상 고 이인진
9/19(목) 관악금천 최경옥 집사 모친상 고 임정례
9/19(목) 가정사역 이서은 성도 부친상 고 임용택

온누리신문

등록번호 다-3802호
발행인: 이재훈
편집국장: 이인용
편집부장: 김남원
기자: 정현주, 김현준, 김영선, 권찬송, 홍하영
140-026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전화: 02-3215-3193 홈페이지: news.onnuri.org
온누리신문은 재생용지를 사용합니다

온누리 복지재단

군포하나로남자중장기청소년년례 청소년 입소, 입교생 모집
내용: 기술 및 가정복귀가 어려운 남자청소년 원터입 소 및 하나로꿈학교(교육형 지정 대안학교) 입교 대상: 입소생(15-20세) / 입교생(경기도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
문의: 유요연 팀장(031-399-7997)

온누리요양센터 및 자원봉사자 모집
내용: 천양, 성경양기 등 봉사자 모집
문의: 이진옥 복지팀장(031-334-9090)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55세 이상 지역주민 무료취업 지원
신청자격: 서울시 거주 만 55세 이상 구직자(신분증 지참 방문 접수)
주요직종: 경비원, 청소원, 요양보호사, 주차관리원, 조리원 등
문의: 박나희 사회복지사(02-796-7635)

서초구립중앙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배식 및 설거지 봉사자 모집
내용: 11:00-14:00 / 점심식사 제공
문의: 김예진 사회복지사(070-7163-2465)

청파노인복지센터 경로식당 봉사자 요청
활동일자: 화, 수, 목 9:30-14:30(식사시간 포함)
문의: 이기일 팀장(02-703-6011)

번듯코이노니아 장애인보호작업시설 자원봉사자 모집
문의: 이영환 팀장(02-985-3809)

제정

십일조 계좌: 하나은행 573-810034-10105
해외선교계좌: 하나은행 573-810034-09105
비전지방 헌금: 하나은행 573-910001-23005
* 은행계좌로 송금시 이름과 주민번호 앞 네 자리 또는 여섯 자리(김포2501010)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 서빙고

온누리 상담실(선교관 지하 1층)
상담접수: 02-793-2997~8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토-일 오전 10시-오후 3시)
면접상담: 신앙과 심리상담(개인, 부부, 아동, 청소년, 가족)
심리검사: 각종 심리검사, U&I(학습성격 유형(진로 검사))
특수상담: 법률상담 둘째 주일 오전 10:30-12:00 인터넷 중독 상담

■ 양재

온누리상담센터(원형커피숍지동문안쪽)
상담접수: 570-7536-7(상담예약필수)
개인, 부부, 가족, 아동, 청소년(영어 상담 가능)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토-일: 오전 10시-오후 3시
각종 심리검사 및 집단 치유 프로그램
법률 상담: 일요일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세무 상담: 둘째 주일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결혼·광고

■ 결혼

9월 28일 토요일 오전 11:00 서빙고 본당
방세영, 강귀화의 아들 방상혁(온누리교회)
김윤복, 유재은(온누리교회의 집사, 권사)의 딸 김진(온누리교회)

9월 28일 토요일 오후 2:00 서빙고 본당
이근재, 이예수의 아들 이종혁(신촌성결교회)
김용철, 김명희(노랑진교회 안수집사, 권사)의 딸 김현아(온누리교회)

■ 광고

온누리남성성교합창단 단원모집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지하 1층 한동홀
문의: 정상구 총무(010-4731-6514)

온누리 NGO 더멋진세상 해외사역자 모집
분야: 세네갈 농업사업 현장PM
문의: 이가일 PM(02-2271-2246)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abetterworld.or.kr) 참고

시청자와 함께! 미디어선교

CGNTV 콘텐츠로 삶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YouTube KNOCK노크

“KNOCK <붓소한섭>을 보고
전도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혜 답글 · 🍎 🍌 🍷

조셉님 보면서 처음으로 버스킹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김*현 답글 · 🍎 🍌 🍷

내가 성공을 하든 못하든 최대한 전도하는 삶 살아야겠다 붓소형처럼

#도전 #버스킹 #전도 #조셉붓소



YouTube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를 통해
신앙의 본이 되는 부모가 되기로 다짐했습니다.”

※실천 편 9월 29일 방송 예정

실천 편 참여 가정 김동진 집사 답글 · 🍎 🍌 🍷

<아빠가>와 함께 드리는 가정예배를 통해 아들과 딸에게
참된 신앙을 물려줄 겁니다.

#가정 #예배 #믿음 #성장



YouTube CGNTV

“<싱글빙글 : 홀로된 엄마들의 빛나는 오늘>이
전한 위로는 다시 일어설 용기가 되었습니다.”

다비다 자매회 소감 中 답글 · 🍎 🍌 🍷

사별한 엄마들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제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절망에 빠진 분들이 이 다큐를 보고 다시금 용기를 얻을 거예요.

#위로 #용기 #극복 #희망

10월 6일은 CGNTV 정기후원의 날입니다.

정기후원 [KEB하나은행 573-910002-67804] ARS 060-700-1660 문의 02-796-2243

CGNTV 후원캠페인
함께! 미디어선교



인도네시아 바둥이족족 남영순선교사